

20년, 은혜의 흔적

Stigma

Healing & Change

333 Vision

3만명의 가족
3천명의 평신도 선교사
3백명의 해외 선교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Healing & Chang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렘 33: 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emiah 33: 3

333 Vision

New Vision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기념사

20년, 거룩한 스티그마(흔적)

20년 전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소원은 단 순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조국 땅에 남기고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조국의 땅에는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민 목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미 한국 땅에는 그때에도 반 기독교적 정서가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좋은 학교나 좋은 병원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여전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의미는 모든 좋은 학교나 좋은 병원을 합한 모든 존재 의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녕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대 사명(전도 / 선교명령)과 주님의 대 계명(이웃사랑의 명령)두 가지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선교명령에 순종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우리의 열

망은 333비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당시 지역 인구(분당 / 수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에 대한 전도의 책임을 다해보자는 것, 그리고 그 중 10분의 1인 3천명을 신실한 주의 제자들로 키워보자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중의 10분의 1인 3백 명 정도는 타 문화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열망은 탄생 15년 만에 성취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이 비전의 원천되신 주의 은혜 때문이며 부족한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라 주었던 성도들의 애정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탄생 10년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야 말로 이웃 사랑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법인을 구성하고 사회 복지를 전공한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 비전 실현을 지휘하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창립 20주년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등록 이후 10년 만에 11개의 모범적인 사회복지 기관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인 이웃들을 섬기는 보기 드문 섬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 붙들어 온 한결같은 비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년 함께

섬겨주신 모든 지구촌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축복해 주신 모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난 20년, 우리의 역사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 진재혁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20년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20년의 역사의 조각들을 모으고 기록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신 역사 편찬 위원들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집을 통해 짧지만 결코 짧은 시간만도 아닌 세월의 흔적속에 드러난 거룩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20년을 공동체의 지체로 섬겨온 중,
이동원 목사 (창립 / 원로목사)

주후 2014년 빛나는 7월의 하늘 아래서.

Samuel Lee

“지난 20년, 우리의 역사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Part 1

목회철학	012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상	014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목회	015
사역의 핵심가치	016
비전(VISION)	018
교회 심벌마크	020
지구촌교회의 발자취	022

Part 2

개척 및 태동기	030
분당 정자동 시대	046
수지 신봉리 시대	074
두 날개 성전시대	112
아름다운 동역 시대	216

Part 3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 _ 3N3G	260
-------------------------	-----

Part 4

동역 / 협력	292
---------	-----

Stigma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 23-29)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교회의 일꾼’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

따라서 모든 사역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일(전도)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성숙한)자로 세우는 일(양육)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은

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전파(선포)하는 예배의 장과

② 치유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목장의 장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

우리들 사역자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상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훈련공동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치유공동체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공동체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목회

전인목회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영과 육이 통합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균형목회

우리는 전인목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하며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조화된 삶을 추구하며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책임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땅끝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목회

우리는 이와 같은 균형과 헌신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회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회의 중심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지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역의 핵심가치



셀 교회 공동체

훈련 공동체

치유 공동체

비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중보 공동체

Q.T 공동체

자유 공동체

은혜 공동체

복음주의공동체

목장사역(셀 사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말씀 공부와 말씀 나눔을 통한 훈련을 중요한 사역가치로 삼는다.

가정 사역과 직장 사역을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가치 실현의 장으로 이해한다.

청소년과 젊은이를 중요한 사역 자산으로 이해한다.

타문화권 선교와 국내선교, 사회봉사를 지구촌교회 대외 사역의 우선 순위를 삼는다.

사역실현의 도구로 중보 기도를 중시한다.

개인 영성의 핵심으로 Q.T(Quiet Time)을 중시한다.

자유와 책임을 사역자의 사역 태도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모든 사역자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사역한다.

지구촌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연대하는 협력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비전 VISION

창립 비전

지구촌교회는 철저한 성서교육과 복음전도훈련 그리고 선교훈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역동적인 교회성장을 추구하여 공동목회에 의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21세기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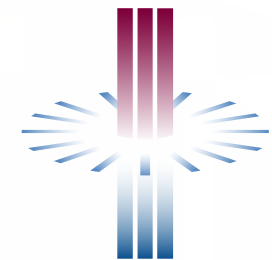
비 전 |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사 명 |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아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가정, 직장,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지구촌 선교네트워크 확장에 헌신한다.



초창기 로고

로고 안에 있는 두 점은 각각 한국과 워싱턴의 지구촌교회를 의미하며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점차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는 지구촌교회의 복음화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행1:8)에 따라 지구촌 전 지역에 선교기지가 설립되어 지구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하는 것이 지구촌교회의 사명이다.



현재 로고

현재 지구촌교회의 심볼은 복음과 믿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세 개의 수직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동시에 세 개의 기둥은 각각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던 333비전, 곧 3만 명의 교회가족, 3천 명의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3백 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개의 기둥을 둘러싸고 퍼져 나가는 빛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정과 사회, 민족과 세상을 향하여 증거 되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상징한다.
성스러운 느낌의 포도주 색과 푸른 색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변화되어야 할 세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지구촌교회의 발자취

개척모임

1993년 초, 미국에서 목회 중이던 이동원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 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 미국을 찾아온 몇 명의 성도로 부터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을 요청 받았고, 이에 워싱턴지구촌교회(제일한인침례교회)는 세계복음화의 비전 아래 이동원 목사의 한국행을 기꺼이 동의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이동원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개척을 준비하였다. 그 해 11월, 경기도 수지의 선경 스마트 복지관 강당에서 65명이 조용한 창립 준비예배를 드림으로써 지구촌교회가 시작되었다.

태동기

1994년 1월 첫 주일, 300여 교우들과 원근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축하객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선경 스마트 복지관 강당에서 정식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 날마다 부흥을 더해가며 정식 예배 1년 만인 1994년 말에는 장년 출석 교인들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분당 정자동 시대

1995.8~1998.3

분당 정자동 성심빌딩의 지하 본당과 4층의 교육관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구촌교회의 분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기간에 장년 교인 출석은 1,000명에서 4,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여 인접한 4층 빌딩 전체를 교육관으로 임대할 정도로 폭발적 성장한 기간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지구촌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틀이 확립된 시기로서 이동원 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로 새생명, 새가족, 새공동체반 등이 운영되어 전 교우가 일꾼으로 훈련되었다. 아울러 이웃사랑축제를 위시한 연례적인 교회 프로그램과 의욕적인 세계 선교 전략의 그림이 그려진 기간이었다.



수지 신봉리 시대

1998.4~2003.3

분당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년이 못되어 주일 다섯 번의 예배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지구촌교회는 다시 수지 신봉리 언덕의 신학교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한 번의 이전을 하였다. 아직 개발되기 전의 신봉리 논밭 사이에 들어선 교회는 또 다시 힘찬 행군을 이어갔다.

1999년에 부설기관으로 목회리더십연구소를 발족하여 한국 목회자의 리더십과 영성, 설교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월에는 교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배, 선교, 봉사, 친교의 모임을 소그룹 목장에 위임하여 교회와 목장이 동역하는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시도하였다.





수지와 분당 두 날개 성전시대

2003. 4~2010.12

수지의 예배당이 다시금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촌교회는 2003년 4월, 분당 미금의 쇼펩몰 건물에 또 하나의 성전을 마련하고 비전센터로 명명하였다. 수지 신봉리 성전과 분당 비전센터에 광케이블을 통한 쌍방향 송수신으로 동시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 성전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목장교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교우들은 이제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와 봉사를 시도하고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오기 시작했다.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주도하는 부흥이 시작된 시기였다.

2010년 4월에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동역’이라는 슬로건으로 ‘부활절 지구촌 목장 공동체 대축제’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31,0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하였다. 그 축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구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동역으로 펼쳐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지난 16년간 지구촌교회가 품고 섬긴 333비전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든 교우와 한국 교회 앞에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동역 시대

2011.1~현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17년간 사역해 온 이동원 목사는 2010년 65세로 조기은퇴를 준비하며, 2009년 청빙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이상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따른 청빙 과정을 통하여 후임자를 물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진재혁 목사는 2010년 12월 26일 이동원 원로목사 추대 및 진재혁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통해 지구촌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신년축복기도회를 통해 ‘위대한 동역’을 함께 선포한 이동원 원로목사와 진재혁 담임목사는 아름다운 리더십 승계의 본을 보이고 있다.

향기로운 수요일예배, 파워 웬즈데이, 홀리 웨이브, 마가기도회 등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GLOBAL MISSION CHURCH



GMN채플

수지성전



분당성전

경기대채플



수원리함무스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향한 지구촌의 첫걸음

개척 및 태동기

1993. 11 - 1995. 7



교육관 및 사무실로 사용된 선경스마트 공장 전경.
1993년 12월 15일, 교회 명칭을 지구촌교회로 확정하였다.



공항 도착, 첫 모임

1993년 11월 13일.

미국에서 목회 중이던 이동원 목사는 철저한 성서교육과 복음전도 훈련, 그리고 선교 훈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역동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여 '공동목회'(Team ministry)에 의한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귀국, 김포공항까지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비전 성취를 위하여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첫 개척 준비에 모인 65명의 성도들 1993. 11. 14

지구촌 교회의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1993년 12월 말까지 약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지구촌교회가 세워 갈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비전을 나누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교회에 대한 기대로
매주 감격스러운 주일을 보냈다.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에서 지구촌교회로

이동원 목사는 1992년 말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1993년을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 사역을 마감하는 해로 작정하고 실행 위원회 핵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는 -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합동신학교 교수와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 이던 - 김만풍 목사를 제일한인침례교회 부목사로 1년 사역 후 교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했고 김만풍 목사는 이를 쾌히 승낙하고 도미하여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선교협력과 교차사역 등을 통해 목회 협력이 가능하다면 공동목회를 한다는 전제로 교인 95% 이상의 찬성으로 이동원 목사의 귀국을 허락하였다. 이동원 목사는 1993년 봄부터 워싱턴교회 스태프들의 자문을 받으며 한국에서 개척될 교회의 비전과 개척 전략,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는 그해 가을 제직회와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 한국에서 개척될 교회와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교인들에게 이름을 공모하여 '지구촌교회'로 두 교회의 이름을 통일하기로 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는 당시 건축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한국 지구촌교회 개척을 위한 종자 헌금을 귀국하는 이동원 목사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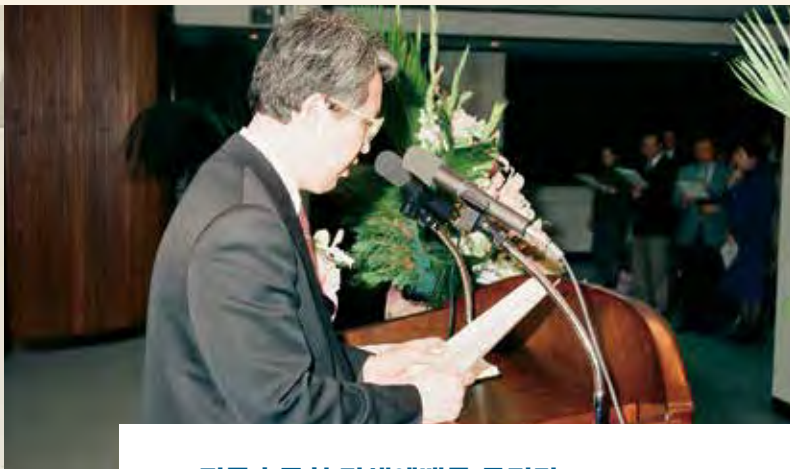
- ◀ 위 _ 워싱턴 지구촌교회 내부전경
- ◀ 아래 _ 워싱턴 지구촌교회 창립 19주년 축하 및 한국개척선교만찬 단체사진

교육관, 첫모임

처음 예배 장소로 사용된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 동천동의 선경 스마트 복지관이다. 지구촌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이곳 선경 스마트에서의 모임은 침례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의 요람 같은 곳으로 지구촌교회의 걸음마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곳에서의 짧은 1년 반 동안 지구촌교회의 가족은 2,000명을 헤아리는 대가족이 되었다. 초기부터 지구촌교회는 새생명반, 새가족반, 중보기도 사역반 그리고 전도포발 사역반과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 장년 600여명이 성경공부에 참여하였고 교회의 비전을 사랑하며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뜨거운 마음의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섬김으로 주일학교 및 청소년 학생들도 날로 늘어났다. 그 때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다시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역하고 있다.

- 위 _ 수지 동천동 소재 스마트 복지관
- 아래, 좌 _ 교육관 커팅식
- 아래, 우 _ 지구촌교회 교육관, 1993





지구촌교회 탄생예배를 드린다

1994년 1월 9일 첫 주일 오후. 3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홍정길, 옥한흠, 하용조 목사의 말씀과 격려 속에 탄생예배를 드렸다.

이날 참여했던 세 분의 목사는 교회를 자동차에 비유하며 그동안 세 바퀴가 굴러가는 자동차였는데 이동원 목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야 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되었다며 한국 교회에서 네 교회가 협력하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그 중 옥한흠, 하용조 목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살아생전 네 분이 협력하여 선교한국, 학원 복음화, 코스타, 세계선교, 제자훈련, 전도폭발 사역, 전문인 선교 운동에 힘써 한국 교회 선교 협력의 모본이 되었다.



'93 전교인 송구영신 및 수련회

1993년 12월 31일 교회 근처 교육관에서 송구영신 예배 후,
1994년 1월 1일과 2일에는 수원 근교 청려 수련원에서 교회 창립 준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수련회를 가졌다.



'94 전교인 송구영신 및 원단 수련회

1994년 12월 31일 - 1995년 1월 1일, 숙대연수원





햇불회관에서의 창립 전도 잔치 1994. 5. 7

새로운 감격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지구촌교회 창립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며 창립전도 잔치가 양재동 햇불회관에서 열렸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날 잔치에 참여한 이들로 더욱 성향을 이루었고 식어가던 이 땅의 복음에 대한 열기를 소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신여고 강남 예배와 3부 예배 신설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서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잠실에 위치한 정신여고 강당에서 강남 예배가 드려졌다. 오후에 시작되는 정신여고 강당에서의 예배는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 대학생 예배로 출발했지만 3대 1 정도로 장년층이 더 많았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배 참석자 중에는 각기 자기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예배에 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당시 3, 4백여명이 모였으며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늘어났다.

94년 9월 11일에는 매주 늘어나는 예배 참석자들로 인해 정신여고 3부예배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10월 30일에는 동일 장소에서의 중·고등부 예배도 신설되었다.

◀ 정신여고 예배 모습

▼ 잠실역에서 전도하는 정신여고 찬양대의 모습



탄생 1주년 기념예배 1995. 1. 8

65명으로 첫 예배를 드렸던 성도의 수는
탄생 1주년 기념예배 때는 1,056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영어예배부도 신설되었다.





제 1기 전도폭발 수료 및 환영 만찬 _1995. 7. 1

지구촌교회의 비전 '민족치유와 세상변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도폭발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탁월한 전도의 방법을 제시하며 복음으로 무장하여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전도폭발 제 1기 수료식이 송제오 전도사의 사회로 포이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렸다. 분당과 강남 성전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전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그 후 전도폭발은 해마다 4~500명의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200여명이 결신(결신율 약 70%)하고 있다.



1997년 10월, 지구촌교회는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개최하는 기지교회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전도폭발 5단계(최소한 2년 반의 훈련)를 수료하고 전도폭발 사역에서 2년간을 봉사한 후 일주일간의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거치면 단계별 교재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08년에 개설된 전도폭발 영어반과 어린이반은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새생명반 교육 및 수료

이동원 목사의 목회철학은 초기부터 교육목회를 지향했다. 제자훈련 팀은 '우리 교회는 성서교육과 복음전도 훈련 그리고 선교훈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역동적인 교회 성장 추구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 첫 해부터 제자훈련위원회로 발족되어 새생명반을 운영하였다. 새생명반은 1993년 12월 15일에 처음 개강하였으며,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으로 창립 초기 2년간은 이동원 목사가 직접 강의 하였다. 현재는 교육 기간이 4주이지만 당시는 7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향한 지구촌의 도약

분당정자동 시대

1995. 8 - 1998. 3



분당 정자동 성심빌딩 기공예배 1994. 3. 27

정자동 예배당이 들어설 성심빌딩을 건축하기 전 첫 삽을 뜨는 기공식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원 목사의 말씀 선포와 함께 드려졌다. 성심빌딩은 건물주가 남서울교회(담임목사 홍정길) 성도였는데 빌딩 자체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지만 지하는 지구촌교회에 기꺼이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지하를 교회의 용도에 맞게 설계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건물주가 첫 삽을 뜨기 전 예배를 부탁하여 함께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입당예배 _ 1995.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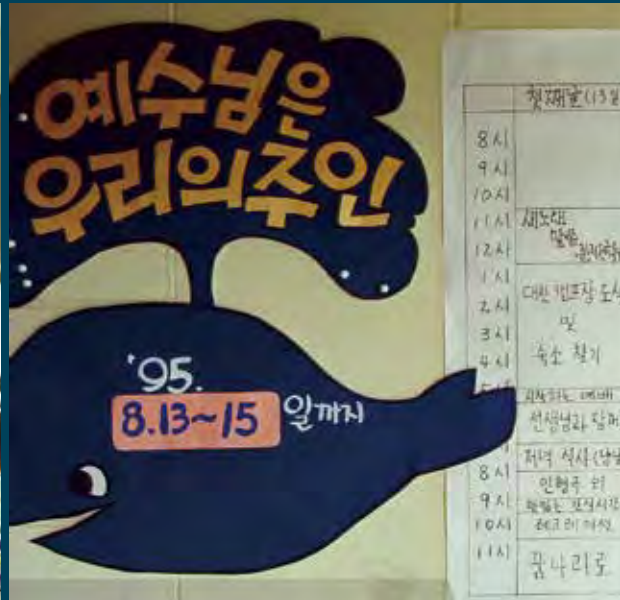
선경스마트 복지관 5층에서의 1년 8개월 동안을 마감하고 분당 정자동 126-4에 위치한 성심빌딩 지하 본당과 4층의 교육관을 임대해 이사한 지구촌교회가 분당시대를 열었다. 이곳에서 지구촌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및 선교 각성대회, 이웃초청 생명의 잔치 등 세계 선교 및 전도 프로그램이 틀을 갖추며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향한 지구촌의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비록 건물 전체를 지구촌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난히 기둥이 많았던 성심빌딩 지하 본당에서의 첫출발은 비전이 꿈틀대는 행복한 카타콤이었다. 이날 입당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남서울교회 담임목사인 홍정길 목사의 역대하 7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진리의 기둥과 터」에 관한 메시지를 경청하며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제오 전 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함께 김상준 외 109명의 제직 임명도 있었던 이날 지구촌 가족 모두는 앞으로 더욱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지구촌교회가 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기도했다. 또한 축하말씀은 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이정희 목사, 워싱턴 지구촌교회, 고신일 집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입당예배의 축하 헌금은 전액 어려운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었다.



입당 축하 예배 및 음악회 _ 1995. 8. 20

찬양은 창조와 구원의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의 시요, 노래요, 제사이다. 또한 주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고 고백이다. 지구촌교회의 짧은 연륜 중에 기적처럼 부어주신 부흥의 은총을 감격해 하며 교회의 정자동 입당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입당 예배 및 음악회는 서울 남서울교회 담임목사인 홍정길 목사의 '진리의 기둥과 터'에 관한 메시지과 김규삼 목사의 열정적인 지휘에 따라 흐르는 찬양의 화음으로 온 회중들을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적셨다.





전교인 여름 수양회 _대전 1995. 8. 13-15

박수웅 장로와 이동원 목사를 강사로 한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5백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양회의 주 강사인 박수웅 장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여 나를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개발이라는 첫째 강의를 시작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철저한 순복만이 균형 잡히고 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꿈꾸는 사람이 되라는 권고의 말씀, 평신도 리더로서의 꿈을 갖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직업, 방향, 결혼을 정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고백적인 간증은 수양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었다.



전교인 여름 수양회 _오대산 1996. 7. 29-8. 1

7백여 명의 교인들이 참가한 '96 전교인 여름 수양회는 이동원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겨준 또 하나의 축복된 집회였다.





가나안 농군학교 전교인 여름 수양회
1997. 8. 4-6

생활의 경험과 근면 그리고 진실된 삶의 규범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물 한 방울 쌀 한 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며 우리 삶의 여러 곳에 배어있는
낭비와 무절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경건한 모습을
확연히 알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수양회였다





지구촌 사랑의 큰잔치 _1995. 10. 3

2천여 명의 지구촌 가족들이 방이동 서울체육고등학교 잔디구장에 모여 '제1회 지구촌 사랑의 큰잔치'를 열었다. '사랑의 큰잔치'라는 이름에 맞게 승부보다는 친교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위주로 진행되었다. 지구별 입장식과 고적대 퍼레이드, 열린 음악회, 가장행렬, 응원 경연대회, 경품 추첨, 가수 윤형주 집사의 간증과 아름다운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이날은 믿지 않는 가족과도 함께 참여한 총동원의 날로서 전도와 친교의 날이 된 은혜의 날, 그리고 전 교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화합의 날이었다. 그리고 비전의 성공을 약속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했다. 이 날의 종합우승은 모든 면에서 기량이 돋보인 1교구(강남, 강동, 수지)에 돌아갔고 가장행렬 우승도 역시 1교구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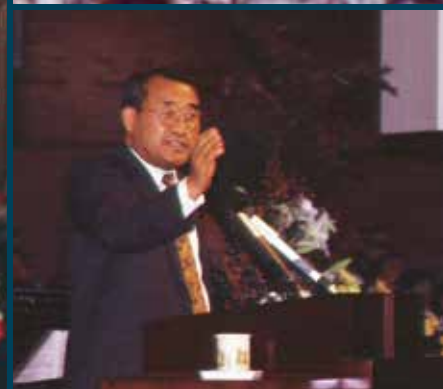




영어예배 시작 _1995. 10. 8
외국인 근로자 초청 예배 _1996.11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단기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또한 선교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는 '외국인 근로자 초청 예배'가 드려졌다. 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기대하며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선교의 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예배였다. 영어 사역부 주관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열린 외국인 초청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Open Hearts and Open Hands)'의 행사로 진행된 이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9개국의 170여명이 참석하여 감사와 찬양 등으로 2시간 동안 친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서울유니온교회 데이비드 피터슨 목사는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하여야하며 모든 축복에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여야 한다고 설교했다. 또한 이동원 담임목사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좋은 인상을 받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그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는 미국 유학시절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은 바 있는데 오늘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자동 시대 _이웃초청 생명의 잔치

새 삶을 얻은 이들이 새 삶의 기쁨을 나누고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이웃초청 생명의 잔치'가 미국에서 온 주강사 짐 폰더 목사와 이동원 목사의 통역으로 열렸다. 짐 폰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자세에 대하여 설교 했다. 연인원 4천여 명이 참석하여 주옥같은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자는 총 177명, 그리고 재헌신자와 재결신자는 각각 222명, 242명에 이르렀다.



어린이 예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 성숙과 바른 인성의 함양을 돕는 어린이 예배가 지구촌교회 탄생과 함께 1994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영아부(0-36개월), 유아부(36개월 - 5세까지), 유치부(6세부터), 초등 1, 2, 3부로 드러지던 어린이 예배는 민족과 교회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어린이 부서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초등부는 현재 유년촌, 초등촌, 소년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단기 선교팀(MET '96) 파송예배 1996. 7. 7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단기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사역하고,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드려졌다. 파송되는 단기 선교팀은 모두 44명으로 인도네시아(3명), 대만 중국(7명), 우크라이나(14명), 멕시코(9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2명), 일본(9명) 등 6개국에 나가 전도 및 의료 사역을 펼쳤다.



고(故) 김태동 집사 위로예배 1997

97년 8월, 광 공항 착륙 중 추락한 대한항공 801편의 추락 사고로 소천한 김태동 집사 일가족의 위로예배가 정자동 성전에서 있었다. 유가족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던 고인의 뜻에 따라 여객기 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구촌교회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 장학금은 디모데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매년 선교사 자녀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탄생 3주년 기념 메시아 선교 음악회 _햇불회관
1996. 12. 7**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가 햇불회관 사랑성전에서 180여 명의 연합 성가대원, 50여 명의 서울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구촌 오케스트라 단원들 등이 출연한 가운데 김규삼 목사의 지휘로 성대하고 은혜롭게 공연되었다. 메시아 공연에 앞서 약 30분 동안 어린이 선교단, 유아부, 중고 등부, 대학부가 준비한 공연이 있었고, 이는 성탄 축제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주었다.





성서적 가정생활 세미나 1995. 4. 24 - 26

제2회 성서적 가정생활 세미나가 '성서적 가정 - 그 포기 할 수 없는 이상'이라는 주제로 이동원 목사, 김만풍 목사를 주 강사로 햇불회관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연일 700-800여명의 부부들과 젊은 남녀들이 참석하여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세미나에는 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타 교인들도 참석하였다.





수지 새성전 헌금모금 전시회,
갤러리 코리아
1997. 6. 20 - 7. 4



수지 새성전 기금마련 걷기대회에 참석한 영어사역부원들



수지 새성전 기금마련 티셔츠 판매

수지 새성전 헌금모금 _1997. 11. 30

수지 새성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각 마을별로 마을을 모아 진행된 성전 기금 마련 바자회에는 먹거리와 일상용품 그리고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었다. 성전 지하에서 열린 이날 바자회는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서로의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어 온종일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었던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수지 새성전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었다.





마을 합창제 _1997. 3. 30

마을 목장 합창제는 지구별로 편성된 여러 마을 목장들이 서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이다. 주일 오후 5시, 마을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단장한 성도들이 본당 여기저기 지정된 장소로 모이자 마치 천국의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2시간여의 공연이 끝나고 음악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수상은 가장 뛰어난 찬양으로 성도들을 매료시킨 초림마을, 으뜸상에는 경쾌한 율동과 코믹한 연기로 본당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강동마을에 돌아갔다.

탄천초등학교 도서관 개관식 1996. 12. 10

지구촌교회가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탄천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모았다. 교회와 인접해 있던 탄천초등학교의 도서관은 지구촌교회에서 서가 26점과 책걸상 등 150점 외에 도서 1,050권 등 2천만 원 상당을 들여 교실 두 칸에 깨끗하게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는 학교 측에 기증서를 전달했다. 탄천초등학교 김흥준 교장은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지혜의 산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낸 지구촌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 수지 성전

지구촌교회는 개척 4년 만에 수지 새 성전 시대를 열게 되었다. 6천명의 출석 성도, 9천명의 등록 성도를 헤아리는 기적의 성장을 하였지만 분당성전은 매주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비전의 땅을 놓고 기도 하던 중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장길평 장로는 1997년 2월 수지 신봉리 산 중턱에 있는 건물을 처음 보았을 때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광야 같은 땅에 지어지다가 부채로 인해 버려진 학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교회에 주시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분당에서 수지로의 성전 이전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다. 우선 제직의 50%만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를 비롯한 많은 제직들은 옹드려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동원 목사에게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다.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를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이사야 41: 18) 당시 짓다만 학교(수지성전)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건물 밑에서 샘물이 솟고 마침내 강물처럼 넘쳐 흘러가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았다. 이동원 목사는 말씀과 꾸었던 꿈의 비전을 성도들과 나눈 후, 성도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수지 새 성전 입당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





부활주일 및 수지성전입당 감사예배

지구촌교회는 수지 새성전으로
이전하면서 입당 기념축제로 21
세기 선교 한국의 꿈을 다짐하
는 '98 지구촌 선교축제를 가졌
다. 1998년 4월 1일 '약속의 땅
비전 새벽 기도회(여호수아 강해)
로 시작된 부활주일 및 입당 감사
예배는 '우리 마을에서 땅 끝까지'
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선교음악축제

축제는 하용조 목사, 홍정길 목사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6회에 걸친 전체 강의와 다양한 선택 강의 및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 시도된 일일선교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연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비전 성취를 향한 지구촌교회의 소명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지구촌비전 창간호 발간

1998년 5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리고 전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구촌 비전'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창간호부터 16페이지 내외의 신문으로 발간하다가 71호부터 현재까지는 잡지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지구촌 비전' 발간 전에도 '형제들의 소식' 3회, '지구촌 비전 뉴스' 3회, '비전 2000' 잡지를 1994년 11월에 창간하여 계간지로 15회 발간하였고 잡지 '햇무리'는 2001년 6월부터 년 2회, 8회 등 교회 공식 발간물로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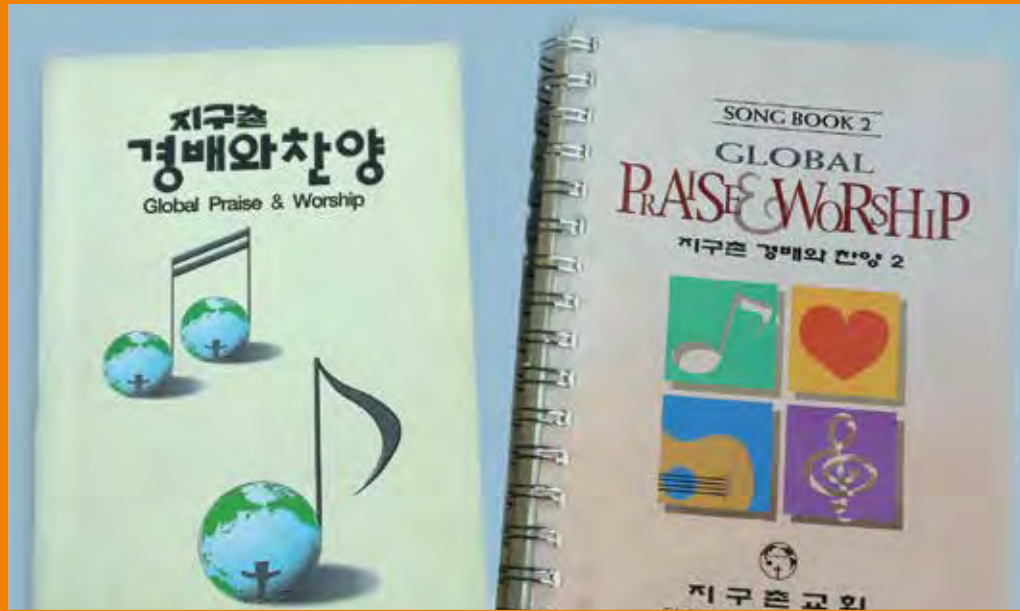




의료선교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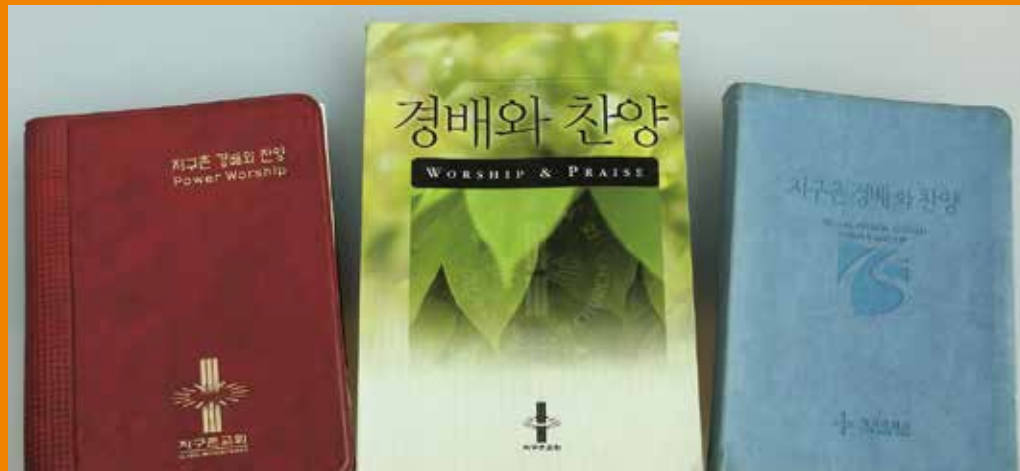
1998년 8월 2일 12시, 수지성전 지하 1층에서 시작된 의료선교회의 진료는 현재 매주 지구촌 선교 센터(MD플라자 빌딩) 7층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있고, 국내선교 및 연 3회 이상 단기로 해외 선교 지에 나가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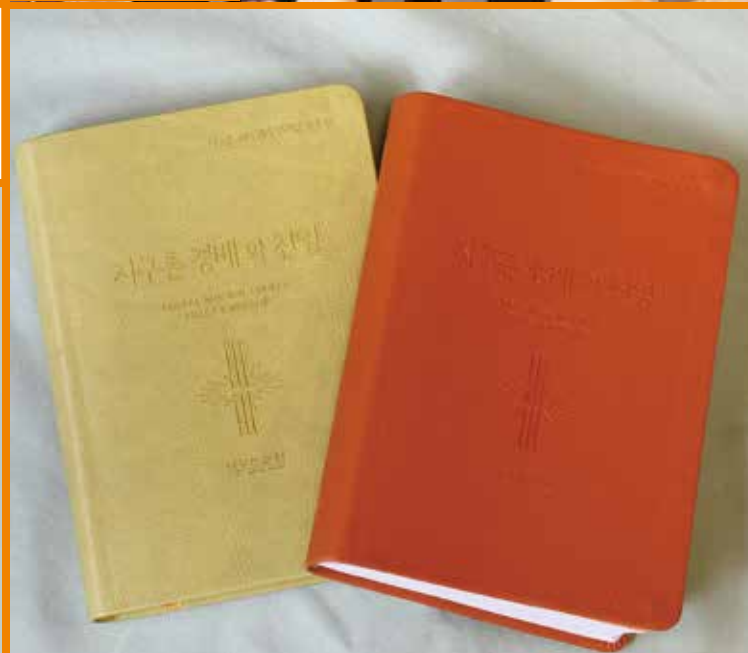


지구촌 경배와 찬양집 발간

복음성가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로 예배와 목장모임에서 찬양을 원활하게 부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배와 찬양집을 1998년 11월에 발간한 후 현재까지 6종을 발간하였다.



1998 경배와 찬양팀



가정상담실 개원예배

글로벌상담소는 1998년 9월 22일 이동원 목사의 인도로 개원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상담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김미영 실장, 김형준 목사, 나희수 목사 등이 상담실장 및 상담소장을 역임하였고, 초기에는 면접상담만 하였지만 현재는 면접상담, 전화상담, 법류상담, 세무 상담, 부스상담 등의 다양한 상담사역과 함께 성도들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구촌문화교실

1998년,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음전파와 크리스천 문화형성이란 목적으로 시작되어 년 3~4회로 진행되던 문화교실은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 교육과학부 정식등록기관인 '지구촌평생교육원'으로 승격되었다. 처음 17개의 강좌로 시작된 문화교실이 현재 120개가 넘는 다양한 강좌로 확대되어 연간 3,500여 명이 질 높은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열린성경대학 졸업 · 열린지도자학교 졸업식

1996년 가을에 시작하여 구원론, 교리론, 경건론, 사역론 등 4학기로 진행된 열린성경대학은 1998년 6월 4일, 1회 졸업생 46명을 포함 현재까지 1,700여 명이 졸업하였다. 현재는 '구속사의 길, 성경적 리더십의 길, 성경교리의 길, 경건의 길, 사역의 길'의 과정으로 5학기로 진행되고있다. 외부 교인을 포함해 매 학기 3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년에 2회(봄, 가을) 졸업식을 하고 있다. 현재는 열린목자대학으로 부르고 있다.





1999년 영구제직 임직자

창립 5주년 감사와 비전축제 _1999. 5. 12 - 16

지구촌교회 창립 5주년 감사와 비전축제가 1999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열렸다. 첫 날 오전에는 김두화 목사와 이동원 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지구촌교회 선교위원회의 지나간 5년을 회고하며 선교사역의 비전축제를 드리고 오후에는 '평신도로서 섬기는 교회, 가정, 직장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5년간의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하여 조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창립 5주년 감사와 비전축제의 행사들 _1999. 5. 12 -16

1993년 11월 14일, 첫 예배 후 2년도 안되어 분당으로 이전, 또 3년도 안되어 교회 건축 및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 창립 5주년 헌당식을 기념하여 지구촌 선교사역의 비전, 지구촌 가정사역의 비전, 지구촌 21세기 교회사역의 비전, 지구촌 젊은이사역의 비전, 지구촌 평신도사역 및 사회봉사 사역의 비전, 지구촌 어린이·청소년 축제, 미전도 종족 입양축제 등 감사와 비전 축제가 열렸다. 감사와 비전축제 뒤에는 마을목장 합창제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과 스킷 드라마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드림선교단 시작 _1999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이 한 해 동안 리더십과 전도 훈련을 받는 선교훈련 과정인 드림선교단이 1999년 시작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린시절부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생각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배우며 복음의 일꾼으로 꿈꾸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아름학교신설

1999년 2월 7일 수지성전 1층 만나룸에서 2명의 장애아와 5명의 목자가 장영준 전도사와 함께 개원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된 아름학교는 점차 장애아들의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 2004년 청소년 장애예배가 증설, 장년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2007년 3월 4일에는 장년마음이 개소되었고 연령에 맞는 예배 및 공과활동이 활발해졌다.



새천년 맞이 지구촌 대축제 _1999. 12. 31

‘준비된 가정되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라는 주제로 시작된 새천년 맞이 CMO새벽부흥회에 이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에는 성남실내체육관에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새천년 맞이 지구촌 대축제’가 열렸다.



1부 한가족축제와 2부 새천년 맞이 축제로 나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축제는 연합찬양대의 축복과 할렐루야로 새해를 맞으면서 참석 교인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호 속에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교회’의 대형 현수막이 폭죽과 함께 펼쳐져 대축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축제에는 참회와 결심의 기도,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성찬식이 있었다. 이동원 목사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첫 해를 창조의 새해로 삼고 창조주의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성도 각자가 주님을 통하여 정직성과 직업 목표를 뚜렷이 할것을 말씀하셨다. 프로그램마다 폭소와 박수,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진 최고의 축제였다.



제1회 영구제직 수련회
(2000. 6. 5~6, 용인이포리조트)



영구제직 수련회

제1회 영구제직 수련회가 2000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안수집사 205명, 권사 230명을 대상으로 용인 이포리조트에서 있었다.

이후 사랑의 교회 수양관(2회), 경기도 청소년수련원(3회), 성우리조트(4회) 등 4회까지 외부에서 열리던 수련회는 영구제직 수가 늘어나 여건상 외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5회부터는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2회 영구제직 수련회
(2001. 7. 16~17, 사랑의교회 수양관)

제3회 영구제직 수련회
(2002. 6. 5~6,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제4회 영구제직 수련회
(2003. 6. 5~6, 성우리조트)



2014 영구제직 수련회





어울림 한마당 _ 2000. 10.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2000년 10월 3일 토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형제·자매 연합선교회의 주최로 '감사와 화합의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열렸다. 외국인들의 태권도 시범과 모두가 참여하는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탄생 8주년 기념 및 목장교회 출범예배 2002. 1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
까지 이동원 담임목사, 모든 교역
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1년 6개월
간에 걸쳐 셀 연구를 한 후 2002
년 1월 6일 주일예배를 통해 교
인들에게 목장교회의 출범을 선
포하였다. 이는 대형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전통적인 구역 중심의
교회에서 성경적인 목장(셀)교회
로 전환한다는 것을 지구촌교회
가 선포한 것이다.



목장축제
2002. 3. 27~31





이후 지구촌교회는 목장교회 정착 3개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립된 한국형 목장(셀) 교회 모델을 모든 교회와 나누기 위해 2004년 5월에 셀 컨퍼런스를 시작하였다.

2002년 출발 당시에는 662개의(교육목장 포함) 목장교회가 2004년 셀 컨퍼런스 시점에는 919개의(교육목장 포함) 목장교회와 128명의 마을 장을 세움으로 지금과 같은 목장교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3,000여 개(교육목장 포함)의 목장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목장교회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목장교회 오픈하우스는 지구촌교회에 등록한 후 목장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교우들에게 모든 목장교회를 3주간 오픈하여 직접 목장교회를 탐방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장을 선택, 목장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2월 16일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해마다 3월이면 지구촌 목장교회의 축제와 같은 행사로 지속되고 있다.

목장 선택 후에 각 목장별로 가정에서 함께 종려주일에 배를 드려오다가 2014년부터는 종려주일이 아닌 별도의 주일을 지정하여 오픈하우스 주일에 배로 드리고 있다.



어머니 기도회

2000년.
당시 치열한 입시 경쟁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예배만 끝나면 학원으로 향했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작된 첫 기도회에 세 명의 어머니가 참석하였고 그렇게 ‘어머니 기도회’는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는 아버지들도 참여하여 현재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교회 내 가장 뜨거운 기도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향한 지구촌

두 날개 성전 시대

2003. 4 - 2010. 12



분당 비전센터 입당 _2003. 5

수지 신봉리에 자리 잡은 지구촌교회 등지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왔다. 심각한 주차난과 비좁은 예배당은 이제 수용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미금역에 지구촌 비전센터를 세우게 하신 것이다.



비전센터 입당
감사와 찬양 축제 _ 2003. 4. 6



비전센터 입당 감사
목장 교회 새벽을 여는 축제
2003. 4. 14~26

2003년 4월 14부터 26일까지 지구촌 가족 5천여 명이 참여한 새벽부흥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지성전과 비전센터, 두 날개 시대를 열어 우리의 소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깊은 어둠을 깨우게 하였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지구촌교회 목장 가족들이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려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무릎을 꿇었다. 비전센터를 세우게 하시며 두 날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더 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벅차게 새벽부터 날아올랐다.



글로벌 목장

나라와 민족을 넘어 지구촌 각 나라의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한 지구촌 교회의 글로벌 목장 사역은 2004년 지구촌비전센터, 2005년 MD프라자 지구촌 미션센터의 예배 공간이 확보되며 영어 예배부, 일본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다문화 예배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영어 예배부

영어 예배부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단기로 방문하게 되는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장기 체류 후 귀국한 내국인이 영어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다.





일본어 예배부

일본어 예배부 처음 시작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일본어에 관심이 있고 일본어 성경 읽기를 원하는 지구촌교회 한국인 성도들에 의해 1999년 1월 3일에 만들어진 일본어 성경 공부반이었다. 현재는 일본어 성경 공부뿐 아니라 일본을 선교 대상으로 품고 예배와 기도모임으로 모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예배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그 사역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나누며 실천하고 있다.





다문화 예배부

2013년 기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40만 명에 육박하여 전체 인구 중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곧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구촌교회 다문화 예배부는 한국 땅에 거주하는 이주민,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무장한 정예 부대로 만들어 본국에 파송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해외선교부

해외선교부는 예수님의 전도 명령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구촌교회의 비전을 토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 현지인으로 하여금 토착 교회 개척 및 사역 이양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3년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해외선교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해외선교팀 산하에 각 단을 두어 단장과 스텝으로 세분하여 본격적인 지구촌 복음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창립 당시 300명의 해외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본격화되었다. 2001년 파송 20가정, 협력 80가정을 파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파송 30가정, 협력 100가정, 2007년 파송 60가정, 협력 150가정, 2010년 파송 100가정, 협력 200가정을 해외로 보내며 300명 해외 선교사 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2007 태국 파송 선교사 컨퍼런스

지구촌교회의 선교사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7년 2월 13-16일 태국 파타야 현지에서 열린 태국 파송 선교사 컨퍼런스는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2008 안식년 선교사 제주 캠프

2008년 실시한 안식년 선교사 제주 캠프를 통해서
안식년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쉼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
하며 글로벌 미션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 2007 선교사 파송식(2. 4) 및 선교출정식, 선교 바자회(6. 17) ▲

▼ 2008 선교사 파송식(1. 6) 및 M.E.T 출정식(6. 22) ▲





지구촌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2004. 5. 30

지구촌교회가 10살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10년, 지구촌교회의 첫 10년은 축복이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던 거친 광야길 같은 세월 속에 민족치유 세상변화 사명으로 달음질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감사의 10년.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





수지 약속의 땅 오픈



지혜의 샘터 개관 _2004. 3. 7 수지 약속의 땅 · 서점 · 카페 · 갤러리 · 도서실

2004년 3월 7일 수지지역의 모든 이웃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샘터’ 도서실이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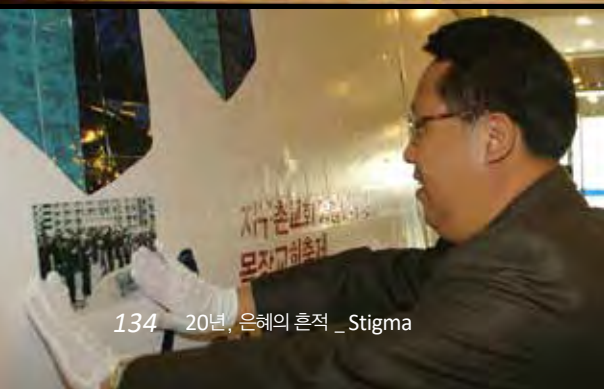
더불어 각종 차와 간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촌교회의 사랑방 ‘드림 카페’와 ‘약속의 땅’ 갤러리가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이 아닌 함께 나누는 문화사역장으로 지구촌교회의 변신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드림 카페



수지_영혼의 글방



제1회 목장교회 셀 컨퍼런스

200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첫 셀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지구촌 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셀을 강조해 오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셀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크지만 작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를 표방하며 큰 교회의 회중 예배와 더불어 작은 셀 교회의 나눔을 통해 삶의 깊이는 나눔이 이뤄지도록 서로 중보하고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시작했다.

부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진 적지 않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셀 컨퍼런스를 통해 세상에 첫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4 셀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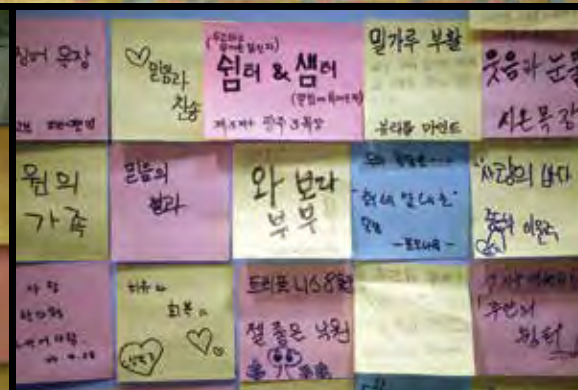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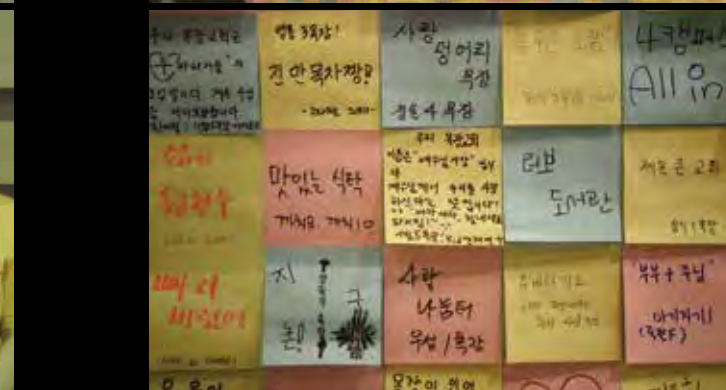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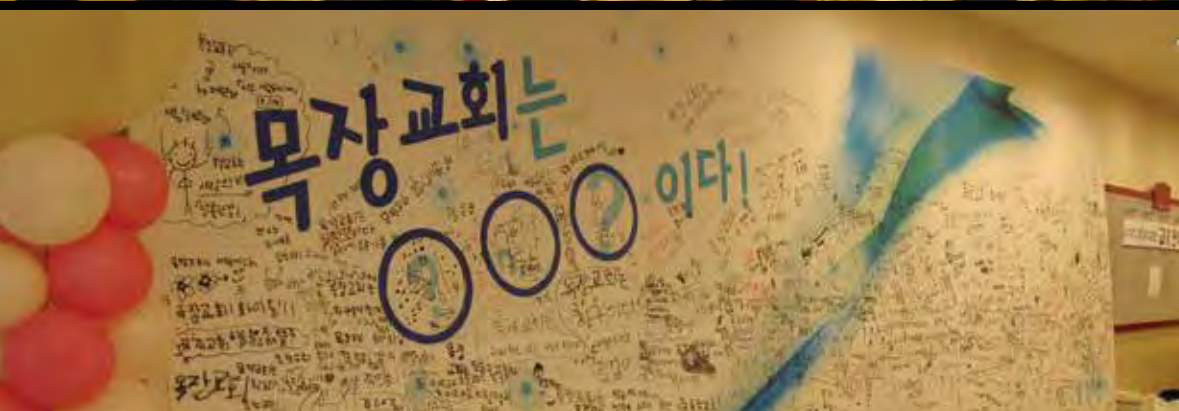




2005 셀 컨퍼런스



2006 셀 컨퍼런스



2007 셀 컨퍼런스



2008 셀 컨퍼런스





2009 셀 컨퍼런스



2010 셀 컨퍼런스





2011 셀 컨퍼런스



2012 셀 컨퍼런스





2013 셀컨퍼런스 10주년

크지만 작은 교회.
지구촌 교회는 목장교회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천국가족이 된다. 그 목장교회 사역 노하우를 나누는 셀컨퍼런스 사역이 2013년 10년 섬김의 역사를 이룩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0년도 지구촌교회의 섬김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교육목장 어린이 비전스타트 신설

2004년 3월 교육목장에서는 비전스타트가 출범하였다. 초등학생 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이 1년 동안 사역자와 함께 새벽 훈련, 시간관리 훈련, 기초 신앙 훈련, 리더십 훈련, 성경적 가치관 훈련(기도, 물질, 예절 교육)을 받게 된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된 미래의 일꾼을 만드는 비전스타트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해를 더할수록 많은 어린 꿈나무들의 체계적인 신앙훈련장이 되고 있다. 토요일에 진행되어 휴일을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절제와 인내를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 받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선교센터 이전 및 2012년 선교센터 지하채플오픈(MD프라자)



2005년 4월 3일 지구촌교회 선교센터가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미금역 MD프라자에 목회리더십연구소, 글로벌목

장사역센터, 선교부,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글로벌상담소, 의료선교팀, 역사자료문서선교팀과 더불어 글로리아 채플, 느헤미아 채플, 소피아 채플, 다니엘 홀, 에스겔 홀, 올네이션스 채플을 보강하여 밀도 있는 사역이 진행되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2년 6월 10일에는 MD프라자 지하 1층 선교센터 지하채플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오픈하였다. 이동원 원로목사, 진재혁 담임목사를 비롯해 선교센터를 활용할 글로벌사역 교역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하는 조출한 행사가 열렸다. 햇빛마당, 달빛마당, 별빛마당이라는 3개의 채플 이름은 이동원 원로목사가 직접 명명하였다.





예꿈찬양단

2005년 1월, 미취학지구에서는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참된 예배자로 훈련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받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예꿈찬양단이 출범하였다.





2006년 코압 삼일절 독립운동 학습



2006년 가정주일학교

제1회 홈스쿨링 세미나

2006년 1월 1일. 보다 나은 미래와 가정과 교육의 회복이 절실한 이 시대에 그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 인성,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글로벌홈스쿨링 아카데미가 전격 출범하였다. 세속적 세계관에 기초한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지양하며, '크로스 커리큘럼' 등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하여 교회와 세상에 성경적 가정회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7월 2-4일에는 본격적인 홈스쿨링 사역을 위한 '제1회 홈스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첫 세미나의 주 강사로는 이동원 목사, 티모티 펜트, 에릭 원로, 브레드 선교사가 참여하여 말씀과 영성 훈련을 바탕으로 자녀를 키우는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누었다.



2009년 성품 기쁨-미취학



2009년 홈스쿨의밤과 졸업식



2009년 홈스쿨 세미나_ 랩 브래들리



2010년 신입부모 교육



2013년 홈스쿨링세미나



대학지구 해피투게더 전도축제 런칭

2006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필요와 성향에 맞추어 대학지구 지체들이 VIP(Very Important Person)를 정하고, 그들에게 기도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소개하는 해피투게더(Happy 2gether) 전도축제가 시작되었다. 봄 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교 및 동아리의 친구들과 친척, 이웃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해피투게더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필그림하우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촌교회에 뜻밖에 큰 선물 필그림하우스를 주셨다. 2000년 4월 21일 한 성도로부터 땅이 기증되어 2007년 5월 25일 착공예배, 2008년 9월 30일 숙소동 준공, 12월 3일 연수동이 준공되었고, 12월 16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 필그림하우스는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009년 3월 31일 헌당예배를 드린 필그림하우스는 피곤한 육신과 고단한 영혼의 쉼터로 지구촌교회 모든 가족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고 이제는 타 교회 성도와 일반인에게도 영혼의 쉼터로 나눔의 개방을 하고 있다.



필그림하우스 기공식 _ 2007. 5. 25





필그림 하우스를 열면서 - 이동원

순례자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례자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하룻밤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 그 집이
인생길 고단한 영혼을 쉬게 할 그 집이

수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수덕의 빛나는 레슨을 줌게 하는 은자들의 집
이름 모를 수도자 압바 암마들의 피난처
메티타치오의 안식으로 어둠을 안습니다.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면
그 청정한 빛깔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집
그 따뜻한 차 한잔에 당신의 미소를 담는 집
이 집의 기도는 영원의 성소에 바치는 순례자의 언어

이 집을 떠난 때에는
당신은 정녕 집 잃은 자가 아니오니
영원의 집을 향하는 새 힘 얻은 순례자로
광야의 남은 길을 노래하며 춤추며 가십시오.



지역주민 초청 열린음악회(수지성전)

2007년 4월 13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끼 있는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되어 열심히 댄스와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수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보이 공연, 색소폰 연주 등의 흥미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옮기는 전략적 복음 사역을 실시하였다.





교육목장 - 수련회

청소년지구 교육목장에는 학년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눈높이 수련회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그동안 진행된 수련회의 명칭을 새롭게 개편하고 더욱 뜨거운 말씀 훈련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중1부터 고2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대그룹 수련회인 '올투(All Together)', 각 마을의 셀을 중심으로 전국의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봉사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 수련회 '셀투(Cell Together)', 세계선교를 위한 시각과 그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는 해외선교 '고투(Go Together)', 수능시험을 앞두고 힘의 시간과 더불어 찬양과 기도로 자신의 비전을 확인하는 고3 학생들만을 위한 청소년기 마지막 특별 수련회 '라투(Last Together)'가 바로 그것이다.





2013년 청소년지구 여름수련회





청소년지구 - 혼전순결서약식

청소년지구에서는 거룩과 쾌락의 두 갈림길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고백하며 부모님과 함께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는 아주 중요하고 뜻 깊은 행사로서 혼전순결서약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01년 5월에 홍수민 전도사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선교와 구제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구촌 교회의 이웃사랑 의지에 힘입어 2002년에 설립되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믿음의 씨앗 단계로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품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용인시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중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급식 지원사업, 행복한 명절나기를 위한 명절 지원사업, 정기적으로 김치를 지원하는 김장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 쌀과 교복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 사업, 교복 지원사업 등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전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는 축복의 통로 단계이다. 2007년 후반기, 사회복지재단의 법인사무국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역을 펼치게 되었다. 시대적인 흐름과 지

역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향한 전인적 섬김을 실현하게 되었다. 2008년 치매 어르신들을 주·야간 동안 보살펴 드리는 지구촌노인복지센터와 이주 근로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주 근로자쉼터를 개원하였다.

2010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촌보호작업장을 개원하였고,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고 거주지를 제공해드리는데 용인시 사랑의 집과 커피와 원예치료를 통해 장애인의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성남시 울동 생태학습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1년 수지구 내의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지구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와 고품격 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이웃과 함께 가는 행복 걸음을 꿈꾸는 수지노인복지관과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같은 해 지구촌교회 드림카페를 카페뜨랑슈아로 전환하여 직영 운영함으로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사회복지기관과 2개의 직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1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사회봉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 점검하였고 교회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재단이 되기위한 비전 2022를 선포하였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외에도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 웰빙하우스 만들기사업, 지구촌교회 15주년기념 장애인견기대회 한마음마라톤대회, 해외구호사업(필리핀 코피노),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해피란 저금통 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그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2008



사랑의 장바구니 시작



웰빙하우스만들기 시작



이주근로자 쉼터 개소



지구촌노인복지센터 개소

2009



한마음마라톤대회 진행



2010



지구촌보호작업장 개원



2010



용인 사랑의 집 수탁운영



해피란 사업



성남시 울동 생태학습원 수탁운영



2011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수지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카페뜨랑슈아 직영운영



2012



10주년 기념세미나 진행



10주년 후원 음악회 진행



10주년 기념 예배 진행



10주년 후원 음악회 진행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



보호작업장 장애인 독도 방문



2013



가족 걷기대회



여주 수해 복구 작업



지구촌해피데이



함께 나누는 행복



행복한 빵 나눔 행사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 검정

2014



사랑의 음악회



다문화가정 고국 방문 지원



변화 될 라면 전달



변화 될 라면 전달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쌀 전달

지구촌사회봉사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사랑에 빛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지구촌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 그리고 하늘의 멋진 상급을 소망하며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그칠 수 없다.

젊은이 목장에서는 젊은이들이 헌금을 모아 구입한 연탄을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인 '사랑의 연탄 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부에서는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장애인 및 노인, 기관에 김장을 담그어 후원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 장마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는 수해복구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창립 15주년 10대 행사

감사 + 나눔 + 비전. 2009년 지구촌교회 15주년 생일잔치는 이 세 단어로 축약되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 지구촌교회 온 가족들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감사하고 나누는,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비전을 세우는 의미 있는 행사들을 가졌다.

1. 교육목장 셀컨퍼런스 2. 9-11
‘다음세대를 향한 열정’이라는 슬로건으로 200여 명의 타 교회 교육사역자를 초대하여 사역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섬김의 축제마당을 열었다.

2. 필그림하우스 헌당예배 3. 31
주의 섬김이들이 지성으로 발을 닦아주는 곳. 크지 않지만 아담한 분위기에서 영성을 마음껏 호흡하도록 설계된 한국 교회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집, 필그림하우스를 완공하여 지구촌 모든 가족의 쉼터, 영혼의 충전소로서 주님께 드려졌다.

3.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5. 24
성남 지역 장애인과 함께한 한마음 마라톤 대회, 저소득 가정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웰빙하우스, 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우물파기, 복음의 헌신

자들을 위해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선교, 장기기증과 헌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나눔 등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지구촌교회의 15주년 생일 잔치를 나누고 섬기는 감사의 잔치로 온 지구촌 가족과 기쁨을 나누었다.

4. 장년목장 셀컨퍼런스 5. 27-29
9년 전 ‘셀[cell]’이라는 씨앗을 지구촌 땅에 심어 6번째 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 셀 교회 운동에 관심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를 모시고 사역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했다.

5. 목회자 사랑의 순례 6. 8-9
1998년 이동원 목사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랑의 순례를 목회자 부부에 적용하여 주님의 일꾼들이 가정에서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의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 젊은이목장 셀컨퍼런스 7. 30-8. 1
방황하고 있는 청년, 진리를 구하는 청년, 피가 뜨거운 청년, 힘들어 지친 청년들에게 셀 교회로 전향하여 기쁨과 사랑, 은혜와 감사, 열정을 회복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설교 컨퍼런스 8.10-14
영혼의 살아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맛있게 제공할 것인가. 설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분석, 강해설교의 근본적인 원리 습득, 구체적인 원고 교정에 이르기까지 말씀 사역의 모든 실제 노하우를 공개했다.

8. 중보기도 컨퍼런스 9. 7-9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중보기도. 나를 위한 작은 기도에서 나아가 이웃을 향해 거룩한 무릎을 꿇는 법을 뜨거운 기도로 함께했다.

9. 이웃사랑축제 10.18-28
오직 예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속되어 온 생명을 살리는 지구촌교회 최고의 잔치. 1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회를 공개하고 전도철학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10. 추수감사 새벽축제 11.23-28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지나온 지구촌교회 15년 세월을 이룬 새벽, 감사와 은혜로 주님께 나아와 내일의 비전을 열고 헌신을 다짐하는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

2009년, 창립 15주년의 모습



15주년기념 캄보디아 우물사업

2009년 지구촌교회 선교부는 교회 창립 15주년 10대 행사의 일환으로 ‘천원에 담긴 생명수’ 사역을 진행하였다.

캄보디아 지역 우물개발사역을 통해 생명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밑받침이 되어주었다. 캄보디아 우물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우물개발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계획, 진행되었다.



15주년기념 한마음 마라톤대회

2009년 5월 23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였다. 5월의 푸른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한마음 마라톤대회’ 나들이를 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봄날의 향기를 즐기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는 기쁜 섬김의 시간,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010 부활절 지구촌 목장 공동체 대축제

2010년 4월 4일 오전 10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지구촌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수지와 분당 뿐만 아니라 우리지구촌교회, 기흥지구촌교회, 동탄지구촌교회, 동백지구촌교회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 3만명의 가족, 3천명의 평신도 선교사, 300명의 해외 선교사 파송의 꿈을 달성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감사의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333비전을 넘어 VISION 2020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맸다. 이날 하나의 찬양, 하나의 기도, 하나의 말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섬김이라는 5개의 주제 및 순서로 2시간여 동안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하나의 교회' 시간에는 지구촌교회의 새로운 2020 비전인 '동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의 명령과 이웃사랑의 명령에 대해 최선의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국내단기선교

2008년 여름단기선교는 그동안 각 지구별로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실시한 것과 병행하여 울진 지역 9개 교회에 지구촌교회 전체가 지구별로 참가하여 집중적인 선교활동을 펼쳤다. 600여 명이 참가한 여름단기선교는 의료 봉사, 이미용 봉사, 교회성경학교 지원, 집 청소와 수리, 영정사진 촬영 등 울진지역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여름단기선교는 태백시에 집중하여 2박3일간 실시되었다. 태백시에 있는 50여개 교회 중에서 16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다.

2010년에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 지역의 복음화와 남도 연합대성회, 미자립 교회 단기선교로 이어지는 복음 사역 역사를 기록했다.

2011년 여름에는 경기도 포천지역의 48개 교회에 목장과 지구별 지구촌 가족들이 복음전파와 현지 선교사역 지원, 의료선교, 이·미용 봉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름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에서 다양한 복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해복구현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실제로 먼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012년 여름에는 충북 음성지역, 2013년 여름은 경북 문경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왔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구촌교회의 국내단기선교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부흥 울진 2008



부흥 태백 2009



블레싱 진도 2010



블레싱 포천 2011



블레싱 음성 2012



블레싱 문경 2013



씨드스쿨

씨드스쿨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T스쿨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헌신된 T들이 1:1 인적 돌봄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고 재능을 발견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꽃피워 나가도록 돕는 대학지구의 사회봉사활동이다. (T는 Teacher의 약자로서 씨드스쿨에서 멘토역할을 하는 대학생을 의미합니다.)





XEE전도폭발훈련

XEE전도폭발훈련은 대상자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화식 전도법, 복음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전도법, 대상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관계중심적 전도법, 연역적이고 일방적 복음 선포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전하는 귀납적 전도법을 특징으로 한 복음전도훈련이다.





8.15 대성회

2010년 8월 15일 서울 시청 앞 광장 60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와 해외 70여개 도시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 - 일어나 함께 생명·희망·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교계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함께 준비하고 개최한 이 행사에서 이동원 목사는 '해방에 대한 감사와 사명'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블레싱 Blessing

해마다 가을이면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웃초청 생명의 찬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중간에 ‘이웃사랑축제’로 그 명칭을 짧게 바꾸었다가 2010년 10월부터는 다시 축복의 의미를 부각시켜 ‘블레싱-Blessing’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원의 기쁨, 눈물과 감격, 축복이 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초청 잔치로 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다.



먼저 받은 사랑이 너무 감
사하고 베풀어...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
어서... 우리는 VIP대상
자를 정하고 무릎 꿇고 우
리 두 손을 모았다. 이른 새
벽, 늦은 밤을 마다않고 가
슴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음식도 나
누었다. 그렇게 우리는 멋
진 가을날의 사랑이야기를
쓰고 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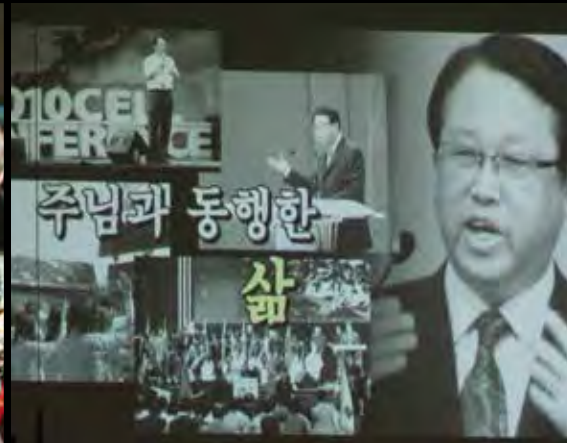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담아 마음 졸이며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형제자매, 이웃들이 마음 문을 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허한 삶,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들... 그들의 아픔을 같이 품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 놓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 시민권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잔치 Blessing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었다.





이동원 목사 성역 40주년 **- 은퇴감사 예배 및 출판기념회**

2010년 12월 14일 저녁, 분당성전에서는 외부 축하인사들과 성도들이 8층 본당과 7층 공간을 꽉 채운 가운데 이동원 목사의 은퇴감사 예배와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이 시대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길을 인도하는 탁월한 목자 이동원 목사의 성역 40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다. 또 '내가 본 이동원 목사(두란노서원 편집부)', '들러리의 기쁨(우명자)',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이동원)' 등 3권의 책을 통해 이동원 목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다섯 가지 참회와
다섯 가지 감사와
두 가지 기대

이동원 목사 은퇴사

다섯 가지 참회

1.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 역사의 한 복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 그리고 지도하던 젊은이들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마당에 서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2. 목회의 마당에서 마음으로는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3. 제가 바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설교한 나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들을 참회합니다.

4. 울곧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특히 교회내 부유한 기득권층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설교를 제대로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5. 의도하지 않았으나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부덕했던 일들을 참회합니다.

다섯 가지 감사

1.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2.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인데 은혜로 복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전도자와 목자의 인생 특히 젊은이들을 주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를 하게 하신 40년의 세월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 나의 부족함을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인내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감추고 지지해 준 나의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신실하고 넓은 마음의 목회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 많은 성도들을 인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4. 오늘 성역40주년 특히 한국 지구촌 목회 17년 목회를 마무리하며 65세 조기 은퇴와 제가 지구촌 교회를 목회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이 없이 은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하나님의 때에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계 리더십으로 잘 갖추어진 글로벌 리더 진재혁 목사님을 예비해주셔서 마음 놓고 담임 목회사역을 마무리하며 한국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대

1.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멋진 원로목사와 후임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지구촌 교회의 새 리더 진재혁 목사님을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격려해 주셔서 지구촌 교회가 변함없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겸손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구촌 성도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의 저의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향한 지구촌교회

아름다운동역 시대

2011. 1 - 현재

이동원 원로목사 추대 진재혁 담임목사 취임

지구촌교회의 2011년 새해는 설렘으로 기쁨으로 시작했다. 이동원 원로목사의 새로운 사역 시작과 함께 진재혁 담임목사의 지구촌교회 2대 담임목사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26일 원로목사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며 지구촌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신년축복기도회

2011년 1월, 지구촌교회에서는 신년 축복 기도회가 열렸다. 지구촌교회에서 시무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다.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새해 첫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향수예배

주일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웃의 손을 선뜻 잡아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예배. 그 후 부담없는 교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수요 낮 예배가 '향수예배'라는 이름으로 2011년 3월 16일, 11시 30분에 처음 시작되었다. 성도들과 이웃의 감성을 이해하고 깊은 영성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감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모토아래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되고있다.





마가기도회

2011년 3월, 수지성전에서는 마가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수요일저녁예배의 문을 열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마가기도회를 통해 동일하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





파워웬즈데이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 10분. 달라진 수요일예배의 마지막 시간대에는 다이내믹한 찬양과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인 “Power Wednesday 8:10”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예배를 통해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Power On! Power Up!의 경험을 하고 있다.





해피 패밀리

5월 어린이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5월의 - 해피 패밀리'예배를 드렸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에 한하여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 본당을 양보하고 어른들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 주는 날이다.





글로벌패밀리 워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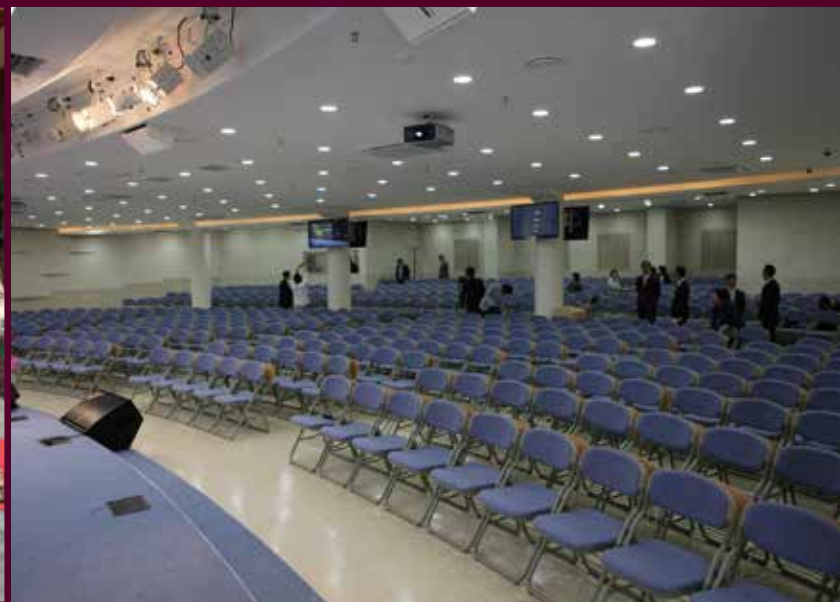
“위대한 선물 글로벌 패밀리 워십”은 이동원 목사의 우리말 설교를 진재혁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 설교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다. 이 시간은 각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되어 천국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축제의 예배 시간이다.





GMN채플 예배 오픈

2011년 6월 26일부터 GMN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GMN채플은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분당성전과 거리도 가깝고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높다.





경기대채플 첫 예배

지구촌교회 경기대채플이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011년 가을 경기대학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전도를 목적으로 신설된 예배처소에는 경기대학교 학생은 물론 인근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지구촌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온가족 GT

2011년 5월에 온가족이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QT하는 패밀리 GT가 발간되었다. 동일한 본문으로 이루어진 큐티집으로, 유아유치용은 뽀띠, 초등학교용은 스위트, 청소년용으로는 주티, 청장년용으로 GT로 나뉘어 출간되었다.

지구촌 온가족이 GT로 하나됩니다!

2011년 5월부터 온 성도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큐티합니다. 미취학에서 장년까지 말씀으로 지구촌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은하수 기도회

‘은하수기도회’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능 기도회’의 줄임말로 수능시험일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지성전과 분당성전에서 기도회를 실시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테마가 있는 특별한 기도회로 진행되며 수능시험에 임하는 지구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다.





청바지선데이

2011년 11월 6일 주일, 수지와 분당성전에서 10시와 12시 두 번에 걸쳐 “청소년 바로 지구촌의 미래다”의 줄임말 청바지 예배를 드렸다. ‘청바지’ 예배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본당에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여 예배를 드렸다. 청소년부 담당 목사의 설교, 청소년부 목자들의 특송 및 안부, 청소년들의 율동 등으로 예배를 가득 채웠다.



목자 퍼스트 콘서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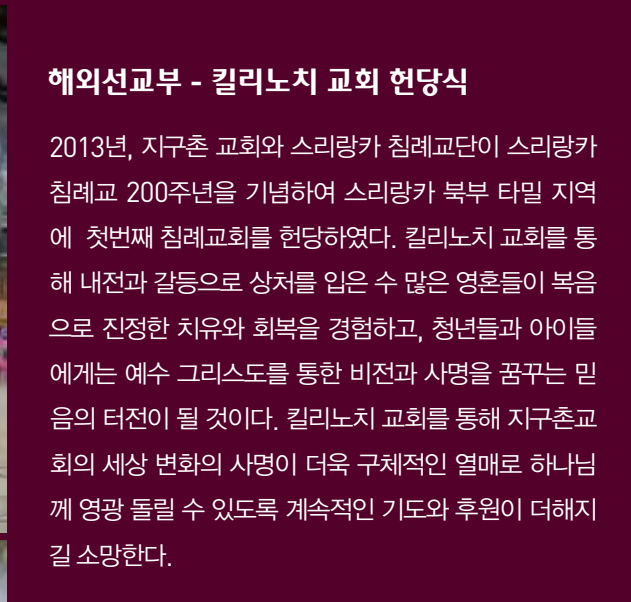
2013년 한 해 동안 마을장과 목자, 각 사역부서 팀장 등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긴 목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자 퍼스트 콘서트’가 11월 17일 주일 저녁 6시 30분 분당성전 본당에서 열렸다. 가수 윤복희의 찬양과 김진규 교수의 드로잉을 통해 참석한 목자들은 은혜를 받았다. 사역자들의 찬양, 이동원 원로목사 진재혁 담임목사의 코믹한 퍼포먼스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목자 퍼스트클래스 2011

2011년 11월 20일 주일 오후 5시 45분, 분당성전 본당은 항공기 기내로 바뀌고 이동원 원로목사와 진재혁 담임목사는 기장으로 바뀌어 기내식 서비스와 웃음을 주셨다. 일명, “감사와 연합, 목자 FIRST CLASS 2011”.





해외선교부 - 킬리노치 교회 헌당식

2013년, 지구촌 교회와 스리랑카 침례교단이 스리랑카 침례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스리랑카 북부 타밀 지역에 첫번째 침례교회를 헌당하였다. 킬리노치 교회를 통해 내전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은 수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과 사명을 꿈꾸는 믿음의 터전이 될 것이다. 킬리노치 교회를 통해 지구촌교회의 세상 변화의 사명이 더욱 구체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더해질길 소망한다.

홀리웨이브

청년 중심의 예배인 홀리웨이브 주일예배는 건강한 지구촌교회의 미래는 청년 및 대학지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드러지는 거룩한 예배이다. 주일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찬양과 경배, 그리고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으로 채워지는 젊은 열정 가득한 예배이다.



사랑의 순례

사랑의 순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교회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인생에 대한 신선한 각성을 불러일으켜 온 지구촌교회를 대표하는 1박 2일 부부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2008년, '5월 프로포즈'를 통해 가정을 새롭게 섬기며 가정을 세우는 '사랑의 순례', '새가정 훈련 학교'가 시작되어 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고,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하게 하며 특히 가정내에서 솔직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땅에서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순례하면서 지난 삶에 대한 회고, 현재에 대한 각성, 남은 생에 대한 탐색, 결혼약강신식을 통해 부부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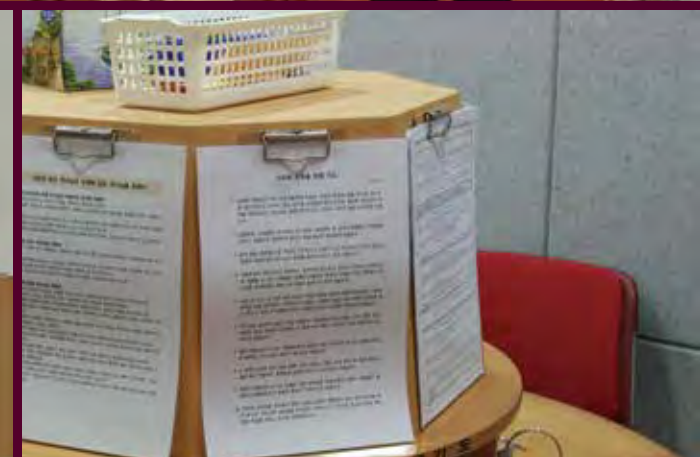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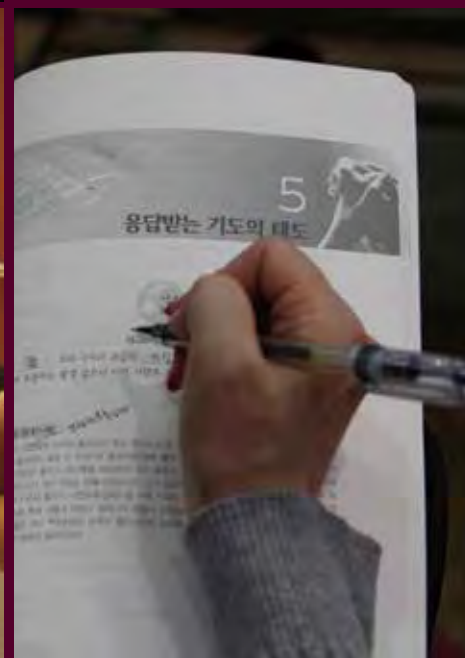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창설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은 지난 40년 동안 초교파적, 세계적 기독교사역으로 성장해 오면서 현재 210여 개국에 보급되어 수천의 교회들 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 제일의 관심사’가 되도록 돕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성도가 전도일꾼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전도폭발훈련은 2014년 현재 8개 반(수지 및 분당 주일반, 화요일반, Xee반, 수지 및 분당 시니어반, 토요일반, 영어 토요일반)을 개설하여 14주간 훈련하고 있다. 매주 철저한 현장전도실습과 교실수업, 보고회로 진행되며, 훈련자와 준훈련자, 훈련생이 3인 1조가 되어 팀 전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39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1단계 179명, 2단계 92명, 3단계 53명, 4단계 33명, 5단계 26명 총 351명이 수료하였으며, 훈련기간 동안 2,650명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중 1,300명이 결신하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구촌교회는 전도폭발 기지교회로서 매년 1회 전국 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지도자 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6월 9일-13일 분당성전에서 진행된 262기 지도자임상훈련에서는 58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하여 강의, 시범, 교실내 연습, 수요 향수예배 참여, 아침 경건회와 기도회, 세 번의 전도현장 실습시간을 갖고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사역세미나 컨퍼런스

1997년 5월, 외부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 교회 중심 중보기도사역세미나 컨퍼런스'를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 1회 컨퍼런스때 76개 교회 154명 수료를 시작으로 2013년도까지 총18회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2013년도까지 총 1,342개 교회, 2,994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대만 등 해외에서도 중보기도사역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국내선교 사역

군 선교 침례식

지구촌교회 군 선교사역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병침례식은 매년 8회 진행되고 있다. 매회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침례를 받고 많은 이들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다. 200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2,039명의 장병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특별히 3사단과 6사단 내에 있는 5개 교회에 군사역자를 파송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하고 있다.





새터민 수련회



새터민 합동 결혼식

북한선교

지구촌교회의 북한선교사역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새터민사역으로 새터민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새터민목장모임을 진행하고, 새터민수련회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새터민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매주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연합목장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자들과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새터민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둘째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통일 한국을 소망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통일비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통일선교 아카데미, 하나원 등 외부 단체들과의 협력사역을 통해 리더들을 교육하고, 새터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새터민연합목장



교도소 사역

지구촌교회 교도소사역은 1999년 장호원국군교도소를 시작으로 교정사역에 뜻이 있는 평신도들이 모여 시작되었다가 2000년 부터는 국내전도부사역에 합류되어 진행되고있다. 그후 대전교도소,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남자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삼당 사역을 하였다. 2012년에는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사역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8개소에 삼당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도소 상담사역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방문하여 1시간 30분 동안 찬양과 말씀, 그리고 소그룹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재소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사역이다.



담임목사 신임투표

2013년 12월 재신임투표를 통해 지구촌교회 제2대 담임목사인 진재혁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을 ‘공식 인정’ 받았다. 지구촌교회 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재성)는 1일 청빙절차에 따른 담임목사 신임투표에서 “정교인 투표자 7,757명 가운데 7,135명이 찬성 투표해 찬성률 92%로 신임되었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위원회는 또 “진재혁 목사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이동원 원로목사는 65세로 조기 은퇴하면서 미국의 진재혁 목사를 청빙했고,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해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을 다시 묻기로 약속하며 담임목사직을 내려놨다. 진재혁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음으로써 이동원 원로목사의 담임목사직 위임절차는 아름답게 마무리됐고, 한국교회 내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New Vision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 2:12

I set out during the night with a few men. I had not told anyone what my God had put in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There were no mounts with me except the one I was riding on. Nehemiah 2: 12

3N
3G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돌아본 것입니다.
그가 그 성벽을 바라보며 가졌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느 2: 12)'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나의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
“지구촌교회가 공동체로써 추구해야 할 민족치유 세상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민족치유를 이야기하면서 -
“우리 민족이 정말 아픈 곳이 어디일까?”

세상변화를 이야기하면서 -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가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들을 던져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3N, 3G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Great Commission
North Korea
Global Church
Next Generation
Godly Leaders
New Family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North Korea*는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통일.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는 탈북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아픔과 고통 중의 하나는 ‘분단된 조국’이다.

북한과 통일, 그리고 지금의 탈북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North Korea’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위해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지구촌교회가 나아갈 것이다.

사역_ 통일비전 컨퍼런스

통일선교아카데미 위탁교육

통일비전 기도회

새터민 목장사역

하나원교육생을 위한 도시문화 생활체험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통일비전 컨퍼런스

통일선교아카데미 위탁교육

통일비전 기도회

새터민 목장사역

하나원교육생을 위한

- 도시문화 생활체험



통일비전 컨퍼런스

지구촌교회의 통일선교 정책에 따른 통일선교의 방향설정과 사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로 통일선교 사역에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가 통일선교 사역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컨퍼런스이다.

통일비전 기도회

통일비전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통일한국을 염원하는 지구촌의 가족들이 모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통일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다.



하나원교육생을 위한 도시문화 생활체험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으로 2인 1조가 되어 주민센터, 은행, 지하철 및 버스 탑승 등 다양한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사회에 나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통일선교아카데미 위탁교육

10개의 이사회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1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강의와 교육, 그리고 접경지역 비전트립을 통해 각 교회의 리더들을 교육하여 교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새터민 목장사역

탈북하여 국내에 들어와 지구촌교회에 등록한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목장모임으로 매주일 모여 찬양과 기도, 나눔의 시간을 통해 새터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며 훈련하고 있다.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Next Generation*은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 어려움들을 본다.

교회 내 주일학교와 젊은이 사역은 힘들어지고, 우리 사회에는 학교 폭력, 어린이 학대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후, 이들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역_ 교회교육 비전컨퍼런스

놀토멘토

가정신앙교육(패밀리 큐티)

씨드스쿨

캠퍼스 올레

일터학교 사역

진로&일터 컨퍼런스



3N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교회교육 비전컨퍼런스
놀토멘토
가정신앙교육(패밀리 큐티)
씨드스쿨
캠퍼스 올레
일터학교사역
진로&일터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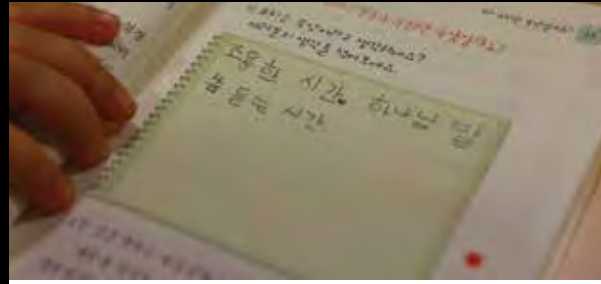


교회교육 비전컨퍼런스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학부모, 교사, 목자, 교역자, 신학생들에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다음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교회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놀토멘토(놀토를 멘토와 함께)

토요일이 어린이(학생)들에게 휴일로 지정되어 '놀토를 멘토(Mentor)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신앙 활동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체험활동을 통한 신앙 안에서 의 폭넓은 소양을 가지게 되는 시간.



가정신앙교육(패밀리 큐티)

온가족의 큐티를 위해, 유아유치용(쁘띠), 초등학생용(스위티), 청소년용(주티), 청장년용(GT)로 나누어 가족이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QT할 수 있도록 한다.



씨드스쿨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매학기 개인 멘토가 학습코칭과 비전코칭을 통해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봉사활동이다.

캠퍼스 올레

대학지구 지체들이 생활의 터전인 학교에서 모여 학교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중 셀 모임이다.



일터학교 사역

성경적 가치와 윤리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코치 1명에게 청년 3명씩 한 조가 되어 13주 동안 일터현장에서의 고민과 갈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가며 세상속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



진로&일터 컨퍼런스

대학,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와 일터에서의 삶을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바라보며 설계해 나가야할지 진로와 일터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자리이다.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New Family*는 새로운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들은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안에 존재하는 여러 모양의 가족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문화 가족을 향한 돌봄, 깨어진 가정의 회복 등 우리가 돌아봐야할 많은 것들이 있다.

또한 요즈음 적지않은 한국 가정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 엄청난 고통과 필요가 있는 한국 가정과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진정 우리 시대에 나타나야 한다.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다문화, 새터민, 이혼, 조손, 고령화, 결손, 독신, 입양, 기러기, 무자녀, 사별, 미혼모, 홀부모 가정 등-을 향하여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의 가족...

소통과 대화의 가족...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가족...

사역_ 회복축제사역 / 새가정훈련학교 및 사랑의 순례 (가정 사역)

글로벌상담소 사역 / 다문화 예배 / 목장 / 피스메이커



3N New Family

새로운 가족

회복축제사역

새가정훈련학교 및 사랑의 순례

글로벌상담소 사역

다문화 예배 / 목장

피스메이커



회복축제사역

회복축제사역은 회복예배와 회복소그룹을 두 축으로 하는 성경적 치유프로그램이다. 예수님의 8복의 말씀에 근거한 회복의 8원리와 25가지 단계별 회복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적용 중심으로 나누면서 각자가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삶의 주제를 실제적으로 다룬다.

새가정훈련학교 및 사랑의 순례(가정사역)

지구촌교회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성경적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새가정 훈련학교, 사랑의 순례 등 각종 가족 세대별 특성에 맞는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새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의 천국인 가정의 원형과 사명을 발견하고 구현하기 위한 성경적 가정 훈련 프로그램으로, 그 훈련학교의 마지막 과정으로 1박 2일동안 부부의 인생의 전반을 돌아보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부부영성프로그램인 사랑의 순례가 있다.



글로벌상담소 사역

상담업무와 교회 내외의 다양한 상담 행사를 통해 교우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신앙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각 분야들의 다양한 형태의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다문화예배/목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진정한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문화 예배부는 이주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 중이며, 주중에는 이주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교제의 폭을 넓히며, 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스메이커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회, 가정과 학교와 일터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갈등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훈련하는 과정.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Great Commission*은 지상 대명령인 선교입니다.

현재 지구촌교회의 선교사역에

‘우리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감당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간다.

사역_ M.E.T 해외 단기선교, M.E.T 국내 연합 단기선교

협력 / 파송 선교사 모집 / 지원 / 케어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크리스마스 만나

목장별 선교후원 및 기도, 평신도 선교사 훈련, 정기 선교기도 모임

군 선교사역, 병원 전도사역, 교도소사역

블레싱 전도 축제, 전도지향적 목장교회 사역



3G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 선교

M.E.T 해외 단기선교
M.E.T 국내 연합 단기선교
협력 / 파송 선교사 모집 / 지원 / 케어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크리스마스 만나
목장별 선교후원 및 기도
정기 선교기도 모임
군 선교사역
병원 전도사역
교도소 사역
블레싱 전도 축제
전도지향적 목장교회 사역

M.E.T 해외 단기선교

M.E.T 해외단기선교팀을 선교지로 파송하여 의료사역, 중보기도 사역, 문화사역, 이미용사역, 어린이사역, 정탐사역 등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수련회, 컨퍼런스 통해 선교사를 재교육 및 훈련하며 더 나아가 선교 동역자를 발굴 하는 사역.



M.E.T 국내연합 단기선교

해마다 교회에서 국내의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여름 7월 말에 전 교회적으로 그 지역의 미자립교회 40-50개에 팀을 보내어 그 도시의 영적 변화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단기선교.

협력·파송 선교사 모집 / 지원 / 케어

세상변화의 교회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영혼에 관심 있는 선교 후보생을 발굴하여 선교사 자격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장 / 단기 및 JSM, 인턴 선교사로 훈련하여 평가 후 파송하여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케어하는 사역.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지구촌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전략적 선교를 감당하게 한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뉴질랜드에 디아스포라 미션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한 진행 중에 있다.

크리스마스 만나

지구촌교회 파송 및 협력 선교사와 연결되어 한해 동안 중보기도 및 선교 사역으로 지원한 목장에서 성탄절을 맞아 선물을 보냄으로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사역.



목장별 선교후원 및 기도

목장교회는 매년 해외선교사 또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연결되어 그 해당 후원 선교사 또는 교회를 위해 헌금으로 후원하며 목장교회 모임 시간마다 중보기도한다.

정기 선교기도 모임

주 2회 정기적인 선교기도모임을 통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안식월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의 선교 보고회로 세계 선교의 흐름과 선교지 정보를 나누며 기도하는 사역.

군 선교사역

군목이 없는 군교회에 군사역자를 파송하여 젊은 장병들의 신앙훈련과 예배, 그리고 전반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한 병사들에게 침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구국기도회, 사랑의온차 전달 등 군선교사역을 통해 황금어장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병원 전도사역

병원전도사역은 입원해 있는 매주일 환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처소를 세팅하고 환자들을 옮겨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예배도우미사역과 병상으로 직접 찾아가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도소 사역

국내에 있는 교도소 중 8개소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찬양과 말씀, 그리고 나눔, 그리고 신앙상담의 시간을 통해 재소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블레싱 전도축제

목장교회에서 1년간 '나도 한사람'이라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온 VIP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적 돌봄의 축제.

전도지향적 목장교회 사역

목장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전도 지향적 공동체입니다. 목장교회는 VIP명단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 전도하며,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다.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Global Church*는 세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시아 교회들은 서양을 바라보지 않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지구촌교회의 셀 사역과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세계 교회를 향해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대가 된 것을 실감한다.
한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

사역_ 해외 셀컨퍼런스
글로벌지구 예배
GMN 사역
MBTS Daniel Lee 채플 헌당





해외셀컨퍼런스

지구촌교회의 대표적인 셀사역을 국내만이 아닌 해외교회들에게도 나누고 섬기기 위해 해외 셀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글로벌지구 예배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 예배로 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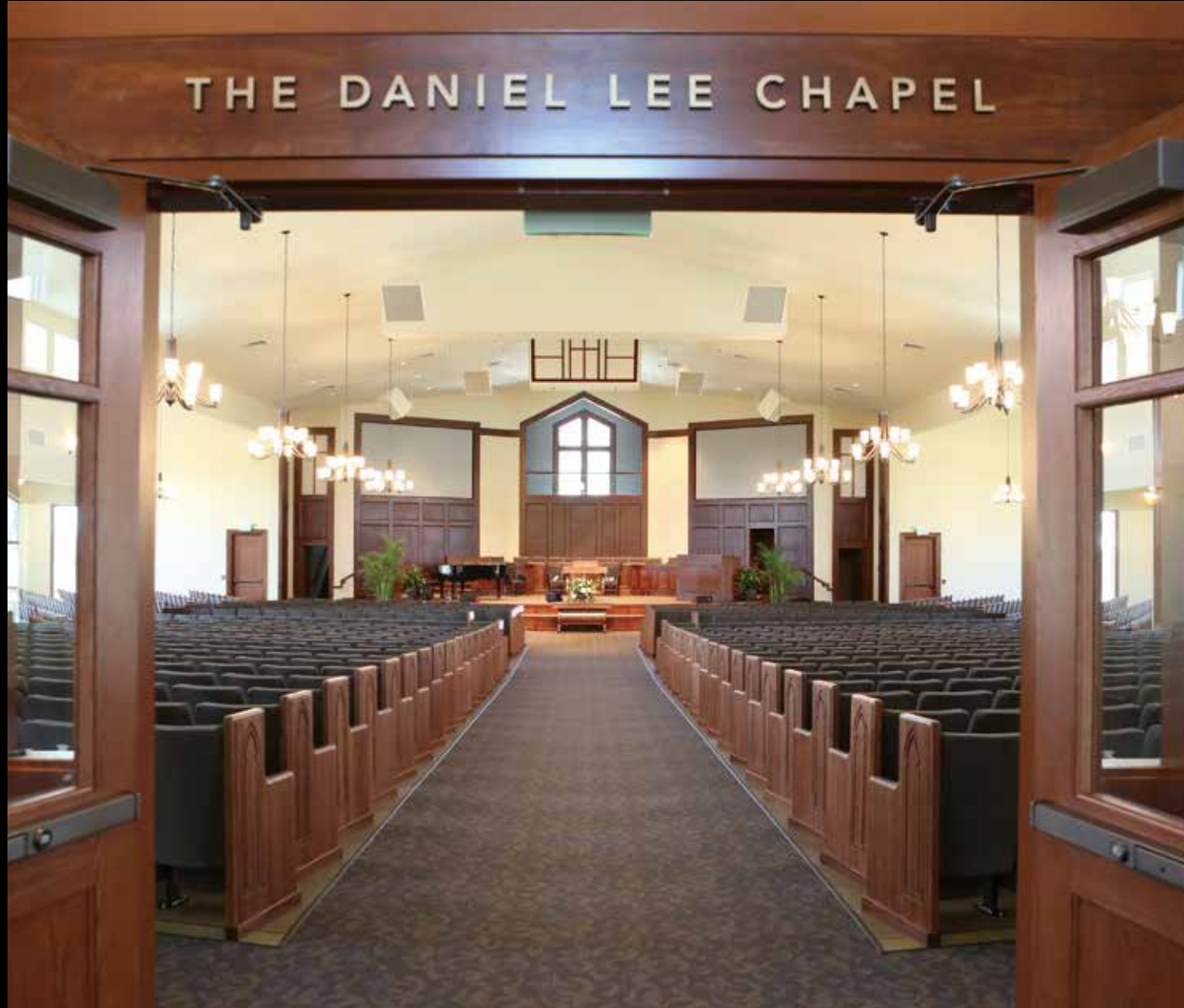


GMN사역

지구촌교회의 “동역으로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세워진 GMN(Global Ministry Network)를 통해 선교 동역, 창립 리더십과 승계 리더십의 동역, 한국 교회와의 동역, 셀 교회와의 동역,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의 동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MBTS(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aniel Lee 채플 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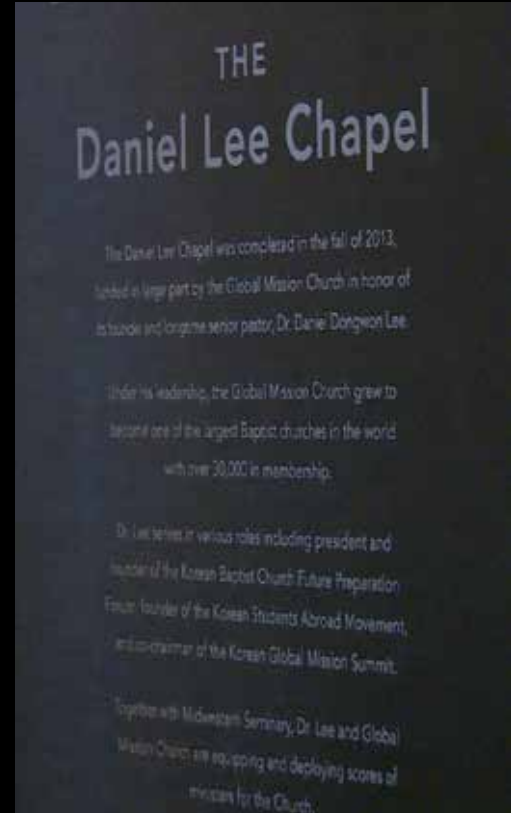
MBTS(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aniel Lee 채플 헌당

지구촌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복음의 빛을 미국 교회에 지고 있는 지구촌교회는 진재혁 담임목사를 위시한 대표단을 파송하여 미국 캔사스 시티 미드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서 거행된 다니엘 이동원 목사 기념 채플 헌당식에 참여하였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름답게 지어진 채플에서는 「다니엘 리 채플 봉헌」 주보가 나누어지며 미국 전역의 교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엄하게 헌당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세계 침례교 복음사역에 기여한 이동원 목사의 사역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의 채플 사역에 지구촌교회가 기여한 바를 치사하는 제이슨 알렌 총장의 감사와 헌사가 있었다. 채플 입구에는 「다니엘 리 채플」이란 문구가 새겨있고 입구 벽에는 지구촌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이동원 목사의 복음사역으로 지구촌 교회가 오늘의 성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벽패가 부착되어있다.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다니엘 리 채플에서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동원 원로목사의 설교와 진재혁 담임목사의 명 통역으로 신학교에 큰 감동을 남겼다.

지구촌교회가 20년을 성장해 오며 이제 세계적인 복음사역의 마당에 존귀하게 서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3N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3G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Godly Leaders*는 경건한 리더를 말합니다.

경건한 리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인해 변화된다.
지구촌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한다.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려 한다.

사역_ 부교역자 리더십세미나, 세상 중심에 서는 영성리더십
여성교역자 리더십 세미나, 인터넷도사 프로그램
지구촌장학회 사역, 멘토 캠프
제자훈련



경건한 리더

부교역자 리더십세미나
 세상 중심에 서는 영성리더십
 여성교역자 리더십 세미나
 인터넷도사 프로그램
 지구촌장학회 사역
 멘토 캠프
 제자훈련

이젠 부자 리더십이다!

부자
교역
리더십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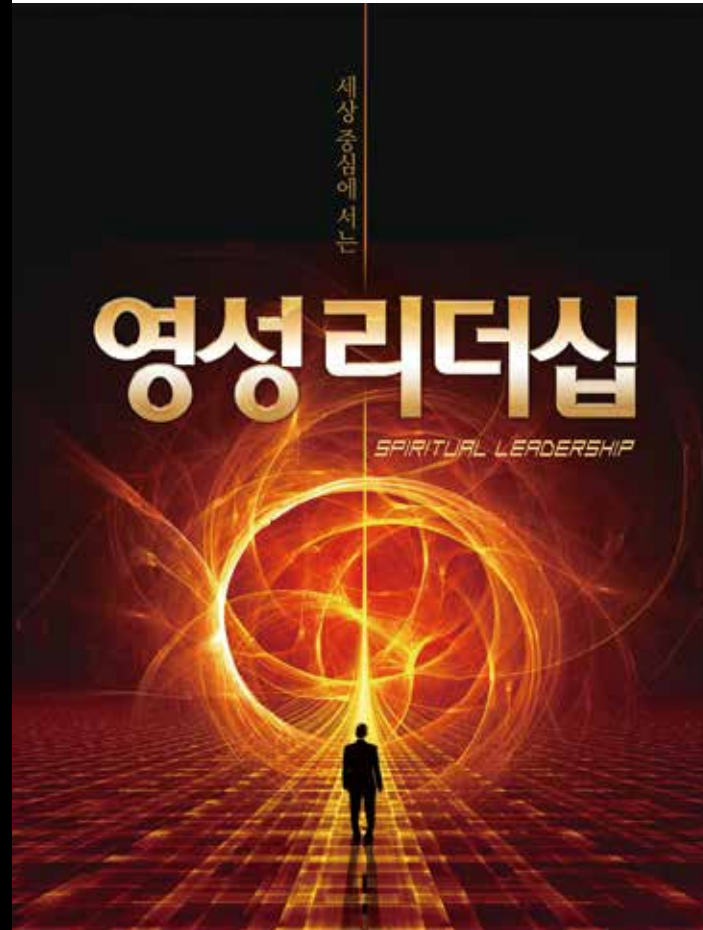
부교역자 리더십 세미나

세미나를 통하여 부교역자들의 정체성
 을 알게 해주며 한국 교회의 리더로 발
 돋움하게 해준다.



세상 중심에 서는 영성리더십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대
 한 프로그램.
 영성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 힘과 소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
 고 세상 중심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성경적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여자교역자 리더십 세미나

담임목회자 및 다른 교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의 딜레
 마로부터 여교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며, 비전을
 가지고 여교역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미나.



지구촌장학회 사역

교우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 발굴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 장학기금
 조성으로 장학사업을 증진시키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멘토캠프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이며,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열어주는 장.



제자훈련

철저한 성서교육에 입각하여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에 맞게, 지구촌교회
 에서는 목장교회 사역 및 평신도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체계적 교육 · 훈련 시스템인 제자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North Korea
Next Generation
New Family

Great Commission
Global Church
Godly Leaders

3N3G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신뢰하고 존중해 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비전,
민족치유의 3N, 세상변화 3G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민족치유 세상변화

동역과 협력



국내성지순례

이동원 원로목사와 함께하는 국내성지순례가 2012년 9월 10일(월) - 9월 13일(목) 3박 4일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의 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4월 1일(월) - 4월 4일(목)까지 3박 4일간 경기, 충남, 호남 지역의 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제주 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해외 성지순례

이동원 원로목사와 함께하는 해외 성지순례가 년1회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터키, 2005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2007년에는 시리아, 요르단, 두바이, 2009년에는 이스라엘, 2010년에는 터키, 그리스, 지중해, 2011년에는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종교개혁 성지순례로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두바이 성지순례로 진행되었다.

2014년은 영국 기독교 사적지 연구 투어로 2014년 6월 23일(월) - 7월 2일(수)까지 10일간 영국 기독교 사적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기독교 사적지 연구 투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 존 녹스, 영국 종교개혁의 창시자 존 위클리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감리교의 선구자 찰스 웨슬리, 천로역정의 저자이며 침례교 목회자였던 존 버니언 등, 영국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의 출생 및 사적지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종교개혁의 벅찬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셀 컨설팅

셀 컨퍼런스, 셀 리더 훈련 세미나 이후에 교회에서 셀 사역을 적용하는 일은 쉽지않은 일이다. 셀 컨설팅 센터는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하여 셀 컨설팅을 신청하면 정기적인 만남 혹은 방문을 통해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한 셀 교회가 되도록 돕고 있으며 교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셀 사역을 지원한다. 지구촌교회에서는 셀 컨퍼런스와 셀 리더 훈련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셀 포럼이 [셀교회와 시니어 사역], [셀교회와 전도], [셀교회와 마을장 사역], [목장과 사역], [목장사역과 가정], [대학부의 목장사역] 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새 생명의 길 / 새 가족의 길 세미나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 설교가인 이동원 원로목사의 지구촌교회의 핵심 양육 교재 첫 번째 이야기인 ‘새 생명의 길’ 세미나가 2013년 11월 14일(목) 1일 과정으로 350여명의 외부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지구촌교회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새 생명의 길’ 세미나를 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첫 걸음을 인도하는 과정을 깨닫게 하였다.





아름다운 늙음의 길 세미나는 인생의 황혼기를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조부모됨, 은혜로운 늙음과 임종을 준비하게 하는 세미나이다. 노년뿐 아니라 중년, 청년에게도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유익한 세미나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늙음의 길 세미나를 통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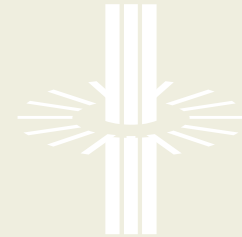


아름다운 늙음의 길 세미나 - 필그림하우스 오픈 5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필그림하우스 오픈 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세미나로 아름다운 늙음의 길 세미나가 2013년 12월 17일(화) -12월 19일(목)까지 2박 3일간 필그림하우스에서 220여명의 외부 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와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 동역교회 / 협력교회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지구촌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전략적 선교를 감당하게 한다. 현재 디아스포라 미션교회로는 호치민지구촌교회, 필리핀지구촌교회, 해밀턴지구촌교회가 있다.
동역교회	동역교회는 지구촌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개척한 교회들로 지구촌 교회와 함께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동역하는 교회들이다. 동역교회들은 지구촌교회의 핵심가치인 목장교회의 철학과 철저한 제자훈련, 전도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세계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동역하고 있다.
협력교회	협력교회들은 지구촌교회에 몸 담았거나 밀접하게 교제해온 목회자들이 섬기는 형제교회들로서 지구촌교회의 목회철학과 핵심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변화, 세계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함께 교제하며 협력하는 교회들이다. 협력교회들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폭넓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호치민지구촌교회

베트남 호치민(B10-2 Nam Thien 2, Phu My Hung, Q. 7, HCMC, Vietnam)에 위치한 호치민지구촌교회 (한준수 담임목사)는 2014년 1월 12일 탄생 예배를 드렸다.



동역교회 발전상

우리지구촌교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1에 위치한 우리지구촌교회 (조상훈 담임목사)는 2005년 창립하였다. 조상훈 담임목사는 2009년 부임하여 우리지구촌교회가 제2의 성장을 이루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5-4에 위치한 기흥지구촌교회 (안용호 담임목사)는 2007년 2월 창립하였다.



동탄지구촌교회

화성시 반송동 88-12 리더스프라자 9층에 위치한 동탄지구촌교회
(국진호 담임목사)는 2009년 2월 3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동백지구촌교회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7에 위치한 동백지구촌교회
(최성균 담임목사)는 2009년 3월 1일 창립하였다.



죽전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08-2 시티빌딩 7층, 8층에 위치한
죽전지구촌교회(이은복 담임목사)는
2011년 3월 7일 창립하였다.



광교지구촌교회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우연프라자 7층에 위치한 광교지구촌교회
(김인환 담임목사)는 2010년 8월 14일 건물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척 준비를 한 후 2011년 1월 2일 개척 첫 주일에배를 드렸다.



송파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삼환상가 3층에 위치한
송파지구촌교회(안철준 담임목사)는 2012년 9월 창립하였다.



민들레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58에 위치한
민들레지구촌교회(장성우 담임목사)는 2012년 12월 설립하여
지난 2013년 12월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위례지구촌교회

송파구 동남로6길15 2층에 위치한 위례지구촌교회
(제흥남 담임목사)는 2013년 12월 13일 창립하였다.

협력교회 리스트

골드코스트지구촌교회	동안교회	상파울로지구촌교회	아틀란타지구촌교회	은혜지구촌교회	한빛지구촌교회
뉴비전교회	라이프스프링교회	시애틀지구촌교회	얼바인지구촌교회	천안지구촌교회	
뉴욕지구촌교회	목동지구촌교회	아리조나지구촌교회	영진침례교회	춘천침례교회	
니이가타지구촌교회	밴쿠버지구촌교회	아틀란타새생명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평택침례교회	

20년, 은혜의 흔적
Stigma

초 판 인 쇄 | 2014. 7. 15

초 판 발 행 | 2014. 7. 20

발 행 인 | 진재혁

편 찬 위 원 장 | 이종웅

편 찬 위 원 | 김영기, 김지태, 동석기, 연규흠, 오도연, 정원중, 박용원

자 문 위 원 | 송병갑, 엄정희, 윤태인, 천정균

총 괄 진 행 | 궁인

실 무 지 원 | 이정호

디 자 인 | 박현주

발 행 처 | 기독교한국침례회 지구촌교회